

12월 10일
+ 11월 12일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2 01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C o n t e n t 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2. 01. vol 59



© 오마이뉴스 남소연



08



26



42

02 아트 갤러리 이달의 표지 작가, 이용규

1월의 문화+서울 | 이제는 지식형 콘서트다

- 04 공간과 소통, 새로운 문화를 낳다
- 06 우리는 왜 지식형 콘서트에 열광하는가?
- 08 지식형 콘서트 트렌드 엿보기
- 12 기부하고 기부받는 좋은 참터로 자리 잡고 싶다. <지식기부콘서트N> 장상연 PD
- 14 <청춘 콘서트 2.0> 현장 & 그밖의 지식 콘서트들

사람과 사람

- 18 문화인 이 남자의 이분법, 박재동 화백
- 26 영 아티스트 <풍찬노숙>의 두 주역, 윤정섭 & 이원재
- 32 나의 서울 생활기 <완득이> '햇산' 역, 수딴 바느지
- 36 서울 단상 봉가봉가레코드 고건혁 대표의 연남동 연가

지금 서울은

- 38 이슈 1 2012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방향
- 42 이슈 2 어른들이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 46 이슈 3 색깔 있는 영화 관람법
- 50 이슈 4 2012년 씨어터고어를 흥분시킬 공연 리스트
- 54 연재 문화예술과 SNS② 소셜미디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다
- 58 이미지 서울 거울동화
- 60 이달의 평론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최대진 개인전 <Human Work>
- 64 리뷰 1 연극 <갈매기>
- 66 리뷰 2 문화체험전 <여기는 대한민국 1970kHz>

서울 너머로

- 68 해외 트렌드 세계 최초의 공용 전기 자동차 시스템, 오토리브
- 70 해외 뉴스 뉴욕, 슈투트가르트

문화@서울

- 72 최중우돌 문화 체험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체험 프로그램 '내 이웃의 주방'
- 76 MUST 7 1월의 문화 소식
- 78 문화 캘린더
- 79 SFAC 뉴스
- 82 현장 인터뷰
- 84 독자의 소리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1년 12월 25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홍보교류팀장 이현아 | 박영도, 정경미, 김수연, 신동석, 주환석 | 씨네21(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편집·디자인·사진 씨네21(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이달의 표지 작가

이용규

도시인, 일상탈출을 꿈꾸다



대부분의 작품에 뚜렷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인물의 감정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인물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인물의 눈, 입, 손동작을 통해 수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

작품의 분위기가 대체로 경쾌한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경기도 안 좋는데 어두운 것보다는 밝고 재밌는 이미지가 낫지 않을까? 평소 나의 밝은 성향이 작품에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주로 내가 생각하는 약간의 일탈과 음주가무를 표현하거나 잔치와 축제의 의미를 작품에 담으려고 한다.

작품의 모티브는 주로 어디에서 얻나? TV나 영화를 보면서 모티브를 많이 얻는다. 특히 TV 프로그램 중 시트콤을 무척 좋아한다. 또 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그때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해뒀다가 작품에 반

영하기도 한다.

작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딱딱하고 고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 한 번 쯤은 자신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 약간의 일탈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래픽아티스트로 더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다. 평면으로 보이는 작품을 색다른 시도를 통해 강렬하고 흥미롭게 재탄생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 입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인쇄방식을 달리하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보려고 한다.

●

서울시창작공간 신당창작아카데미드 3기 입주 작가.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했고, 타이포그래피와 포스터, 책에 관심이 많다. SDF(서울디자인페스티벌), TDC(tokyo Type Directors Club), APD(Asia Pacific Design),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선정 또는 전시를 통해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 1 앞표지 <find a fantasy>, 700×1000mm, 2011
뒷표지 <amazing>, 700×1000mm, 2011
규격화, 정형화되어 있는 딱딱한 도시생활에서 스스로의 판타지를 찾을 것
<find a fantasy>와 <amazing>은 모든 이에게 발당숨을 벗어나 삶의 활력소를 찾으라고 권한다. 자신만의 판타지 속에서 마치 놀이동산에 있는 것처럼 눈물이 날 정도로 신나게 놀아보는 건 어떨까.
- 2 <2012>, 841×1189mm, 2011
- 3 <locomotive>, 700×1000mm, 2011





공감과 소통, 새로운 문화를 낳다

이제는 지식형 콘서트다

딱딱하고 형식적인 출판기념회나 강연회가 아니다. 말랑말랑하고 화기애애한 토크 콘서트다. 정치, 시사, 과학, 인문학 같은 어려운 주제들이 콘서트의 형식을 빌려 대중의 의식을 파고든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청춘 콘서트도 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양방향 소통과 공감의 자리. 참가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생산하고 집단 속에서 따뜻한 동지애를 느낀다. 지식 생산의 새로운 현장, 이른바 '지식형 콘서트'는 이렇게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있다. 오늘도 쇼는 계속된다.



1

우리는 왜 지식형 콘서트에 열광하는가?

지식형 콘서트, 집단지성의 힘

지금 한국사회는 콘서트 열풍이다. 콘서트라고 해서 아이돌이나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를 일컫는 게 아니다. 소위 '지식형 콘서트'라는 것이다. 지식형 콘서트는 최근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청춘 콘서트,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를 딱딱한 강의실이 아니라 현실과의 접점 속에서 이야기하는 인문학 콘서트, 출판기념회

를 대신하는 북 콘서트, 100여 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강연을 통해 기부하는 과학 콘서트, 정치와 언론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이어가는 시사 콘서트,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기술 콘서트 등 주제와 형식도 다양하다.

흔히 지식형 콘서트의 원조로 '테드'(TED)를 꼽는다. 테드는 기술(Technology),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디자인(Design)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1984년 미국의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리처드 솔 워먼(Richard Saul Wurman)과 방송 디자이너 해리 마크스(Harry Marks)가 만든 일종의 지식 플랫폼이다. 초창기에는 주로 유명인의 강연을 듣는 형식으로 그다지 특별할 게 없었지만, 2001년 언론인 출신 크리스 앤더슨이 인수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흔히 테드를 가리켜 '18분의 마법'이라고 표현한다. 세상에 퍼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을 소유한 강연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테드의 중요한 특징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연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강연자는 따로 강연료를 받지 않는다. 일종의 재능 기부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식형 콘서트 가운데 <청춘 콘서트>와 <나꼼수 콘서트>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그중 안철수 교수와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공동으로 만들어진 <청춘 콘서트>는 청년 실업과 등록



2

- 1·2 '나는 꿈수다' 4인방의 토크 콘서트는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주제를 직설적인 화법으로 풀어내 인기를 끈다.
- 3 20대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한 <청춘 콘서트>.



3

© 한겨레

금 문제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 감동을 선사하는 자리였다. 약 5개월간 27개 지역에서 4만 4,0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나는 꿈수다'(이하 '나꿈수') 4인방이 정치 및 시사상을 주제로 연 토크 콘서트가 흥행에 성공했다. 팟캐스트를 통한 방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나꿈수 콘서트>의 인기는 팬덤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뜨겁다. 인터넷 예매는 몇 십 분 만에 매진되고 심지어 압표가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 <나꿈수 콘서트>는 주로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주제를 유머와 풍자, 비판 등을 통해 거침없이 이야기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감성 지식의 탄생

본래 지식의 추구는 지혜를 추구하는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지식의 탄생은 성찰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의 습득을 의미했다. 지식은 초월적 지식이 아니라 보편적 지식을 뜻했다.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습득의 경험은 곧 대중의 탄생을 초래했다. 대중은 본래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의 민주화를 통해 형성된다. 민주주의의 역사와 대중의 역사, 지식의 역사는 하나의 흐름을 갖는다. 그러한 대중의 지식은 대부분 '계몽'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문화 환경으로 들어선 21세기에는 대중의 계몽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인터넷과 SNS 혁명 등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통해 지식 전달과 수용의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의 측면과 더불어 눈여겨볼 것은 지식 생산의 과정이 더 이상 개인의 고독한 작업이 아니라 '집단성'의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지식형 콘서트의 현장은 지식 전달자와 수용자 모두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수평적인 소통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각자 개별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공간적 통합을 통한 친밀감이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오늘날 지식형 콘서트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주요 특징은 공감이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지적 호기심과 욕망을 갖고 있는 타자들을 오프

라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감정적으로 단절된 디지털 문화의 한계를 넘어선다. 학연과 지연, 혈연 등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점차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연대를 발견하는 것이다.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함께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공유하고, 확산하려 한다. 지식은 딱딱하고 건조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한 감성을 통해 전달된다. 이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지식, 그리고 느끼는 지식으로 바뀌었다. 일종의 '감성 지식'의 탄생이다.

지식형 콘서트가 유행하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융합과 통섭을 들 수 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통섭'(統攝, consilience)은 융합과 복합, 혼합이 지배하는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표현이다.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만남이 일어난다. 개별 분야 및 영역을 넘나드는 통섭의 의미는 분과별 지식의 한계를 넘어 통합적 지식의 추구로 나아간다. 근대 이후 개별적 전문 지식으로 움츠러들었던 지식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통섭의 지식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형 콘서트는 바로 이러한 통섭적 지식, 통섭적 인간을 추구하는 시대의 결과물이다.

지식형 콘서트는 분명 새로우면서도 중요한 흐름이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에 자칫 머러만 커지는 '차가운 대중'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따뜻한 대중'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들은 재미와 감동, 소통, 통섭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인으로 거듭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식형 콘서트가 세상을 바꾼다

지식형 콘서트 트렌드 엿보기

화려한 조명과 무대장치 대신 등받이 없는 단출한 의자 두 개가 덩그러니 놓인 이곳. 귀청을 울리는 관객들의 함성소리 대신 소박한 웃음과 간간히 터지는 박수소리가 들려오는 곳. 바로 지식형 콘서트가 펼쳐지는 현장이다. 무대와 객석 사이 자연스런 대화가 오가고, 관객은 언제든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일방향 전달 일색인 기존의 강연과는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콘서트와 같은 점이라면 티켓 오픈 며칠 만에 수백 개의 좌석이 모두 동난다는 점. 수만 명의 소녀팬들을 거느린 아이돌의 콘서트가 아니라고 해서 방심하면 낭패다.

불과 한 해 전까지만 해도 문화계 고유의 것으로 여겨졌던 콘서트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콘서트'라는 단어 앞에 '책', '지식', '재능기부' 등 갖가지 수식어가 붙으면서 콘서트는 비로소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던 각계각층의 관객들





을 끌어들이 수 있게 됐다. 기존 가수들의 콘서트가 연예인과 관객들 사이 일방적인 엔터테인먼트의 소비였다면, 지식형 콘서트는 주인공과 구경꾼의 경계가 없는 양방향 소통의 장이다. 관객석에 앉아 있는 대중은 더 이상 방청객이 아니다. 그들은 일어서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던진다. 못 다한 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하면 그만이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두지 않는 것. 지식형 콘서트의 가장 큰 매력이다.

국내 지식형 콘서트의 신호탄, 북 콘서트

국내 최초의 지식형 콘서트로 알려진 것은 2010년 말 서울 정동 이화여고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던 조국 서울대 교수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북 콘서트다. 이들이 쓴 <진보집권플랜>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북 콘서트였다. 북 콘서트라는 용어가 아직 생소한 때였지만, 인기는 상상 이상이였다. 430석 규모의 좌석은 3일 만에 매진됐다. 송년회 대신 친구들과 함께 북 콘서트를 찾았다는 대학생들, 손주와 함께 온 6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자리를 메웠다. 시민합창단 30여 명이 부른 <그날이 오면>으로 시작된 그날의 북 콘서트는 책의 저자인 조국 교수와 오연호 대표의 입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점차 달아올랐다. 이날 열린 북 콘서트의 작

1·2 <진보집권플랜> 출판기념으로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조국 서울대 교수,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의 북 콘서트. 사진은 각각 대전과 서울의 콘서트 모습이다.

은 출발은 이후 6개월 동안 광주, 대전, 춘천, 대구, 제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북 콘서트 열풍의 불씨가 됐다.

현재 지식형 콘서트의 시초가 된 북 콘서트 역시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오연호 대표가 트위터에 남긴 짧은 글이 발단이였다. “책의 3쇄를 찍으면 호프집 북 콘서트를 추진하겠다.” 당초 50여 명의 독자와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기획된 이 북 콘서트는 참가를 원하는 독자의 수가 많아 자자 수백 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잡아야 했다. 콘서트 준비위원으로는 트위터를 통해 신청한 3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날의 무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독자, 시민들이 함께 꾸몄다. 법전을 사러 서점에 들렀다 이들의 책을 구입하게 됐다는 20대 남학생, 일명 ‘법전남’은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식형 콘서트의 시작은 이렇게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소통과 융합의 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씨는 “지식형 콘서트를 찾는 관객들은 딱딱한 소통이 아닌, 묻고 이의를 제기하고 소통하는 등 무대 위에서 있는 사람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된다”는 점에서 지식형 콘서트의 인기 비결을 찾았다.

북 콘서트가 시작된 지 1년, 지식형 콘서트는 그 1년 사이에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다. 지난 5월 22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첫발을 내딛은 <청춘 콘서트>는 일명 ‘청춘들의 지친 마음 달래주기 프로젝트’였다. 안철수 교수와 시골의사 박경철, 방송인 김제동, 법륜 스님 등은 강연자가 아닌 ‘멘토’로서 무대 위에 올랐다. 박경철 씨는 매번 <청춘 콘서트>에서 “기성세대로서 녹록지 않은 환경을 물려준 점이 못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첫 번째 <청춘 콘서트>가 막을 내린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

각종 공연 스케줄로 가득 찬 연말, 여느 인기가수의 콘서트를 제치고 흥행돌풍을 일으킨 콘서트는 따로 있었다. 11월 30일 여의도공원 광장을 가득 메웠던 <나꼼수 콘서트>였다. 주최측 추산 5만여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겨울 비로 푹 떨어졌던 도심의 기온도 덩달아 올라갔다. 화려한 공연과 게스트 대신 사회비판과 정치풍자가 가득한 무대에 시민들은 열광했다. 서울,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는 <나꼼수 가가 헌정 콘서트>도 연일 매진 사례. 해외로 간 <나꼼수 콘서트>는 미국에서도 1,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도 과학과 경제, 기술 등 콘서트라는 단어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식형 콘서트의 바람이 불었다. 베스트셀러 <과학콘서트> <크로스> 등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기획한 <10월의 하늘>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에 콘서트를 접목시켜 큰 호응을 이끌었다. “과학 강연을 듣기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강연을 기부해주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정 교수가 트위터에 남긴 한 마디에 100명의 과학자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0월 29일, 전국 43개 소도시 도서관에서는 4,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재미있는 과학을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테드’부터 ‘페차쿠차’까지

사실 지식형 콘서트의 열풍은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북 콘서트로 출발한 국내 지식형 콘서트의 원조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테드(TED)와 만난다. 전직 대통령부터 할리우드 스타에 이르는 화려한 강연자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무대 위에 선 멘토라는

점에서 우리의 <청춘 콘서트>와 닮았다. 테드의 동영상 클럽인 ‘테드토크’는 각각의 콘서트가 수천만 회에서 10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지식 콘서트로 자리 잡았다.

2003년 일본에서 시작돼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으로 퍼져나간 ‘페차쿠차’(Pecha-Kucha) 역시 문화, 예술, 디자인은 물론 시사, 학술 등 전 분야에 걸친 주제를 두고 프레젠테이션과 대화를 전개하는 지식형 콘서트의 일종이다. ‘페차쿠차’라는 단어는 재잘재잘 잡담하는 소리를 일본어로 옮긴 것. 페차쿠차의 발표자는 단 20장의 슬라이드만을 사용해 한 슬라이드당 20초씩, 총 6분 40초 안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내야 한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이를 지켜본 다른 동료들과 난상토론을 벌인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두지 않는 페차쿠차는 영상을 틀 수 있는 흰 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시작된다. 이밖에 ‘1%의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99%의 방법’을 모토로 디자인, 예술,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을 나누는 미국의 ‘the99percent’도 있다.

지식형 콘서트, 마케팅 수단이 되다

정치, 시사, 출판, 과학 분야로 변진 지식형 콘서트는 최근 기업의 홍보수단으로까지 나아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카드의 <슈퍼토크>. 어느새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슈퍼토크>는 국내외 문화예술,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강연자로 나서 관중들과 자신의 철학과 지식을 공유하는 무대다. 매번 다른 강연자가 참가하

- 1 디자인 그룹 에프에프가 기획했던 TEDxGeumcheon.
- 2 문화, 예술, 디자인, 시사, 학술 등 전 분야에 걸친 주제를 두고 프레젠테이션과 대화를 전개하는 지식형 콘서트의 일종인 ‘페차쿠차’.
- 3 2011년 11월 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열정락(樂)서>에서 강연 중인 삼성전자 윤종용 교수.





인위적인 마케팅과 광고보다 감성적 동감을 이끌어냄으로써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토크 콘서트의 강점이다. 토크 콘서트가 끝난 뒤 젊은 참가자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이 느낀 감동을 전파한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수천 명의 관중들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 잠재고객으로 만드는 것. 기업들이 콘서트에 열광하는 이유다.

며 주제도 달라진다. 'Insight In, Creative Out'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네 번째 〈슈퍼토크〉에는 디자인 컨설팅회사 '아이디오'(IDEO)의 공동설립자이자 세계적 산업디자이너인 빌 모그리지, 2010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 마이클 필립스 등이 무대에 올랐다. 지난 6월의 세 번째 〈슈퍼토크〉에는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삼성그룹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열정(樂)서〉 역시 지식형 콘서트의 인기비결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삼성그룹 임원진과 각 분야의 명사들로 구성된 강연자들이 관객석에 앉은 대학생들의 고민에 답해주는 형식이다. 휴대전화 '애니콜'을 성공시킨 스타 CEO 출신의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 교수 등이 대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했다. 두 달 동안 열두 번에 걸쳐 진행된 〈열정(樂)서〉 콘서트에는 매번 2,000여 명의 대학생이 자리를 가득 메우는 등 젊은층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IG 등 대기업들이 토크 콘서트의 형식을 빌려 대중과 만나고 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잠재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는 이점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감성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이라면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토크 콘서트로 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스러움’이 핵심인 이 무대 위에 선 이들은 절대 기업의 브랜드를 앞세우지 않는다. 인생 선배이자 성실한 답변자로 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위적인 마케팅과 광고보다 감성적 동감을 이끌어냄으로써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토크 콘서트의 강점이다. 실제 기업들의 이 같은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다. 토크 콘서트가 끝난 뒤 젊은 참가자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이 느낀 감동을 전파한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수천 명의 관중들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 잠재고객으로 만드는 것. 기업들이 콘서트에 열광하는 이유다.

i n t e r v i e w

기부하고 기부받는 좋은 심터로 자리 잡고 싶다

〈지식기부콘서트N〉 장상연 PD

채 석 달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첫 방송을 위해 5개월 넘게 고민해온 실무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이미 성숙한 아이나 다름 없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장상연 PD는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보며, 그 해답을 끌어낸다. 갈등을 해소해주고 고갈을 메워주고 방향을 제시해줄 수는 없을 지라도, 한숨 돌리며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기부하고 기부받으며 서로를 채우는 심터. 〈지식기부콘서트N〉은 그렇게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요새 공중파, 케이블, 너나할 것 없이 강연 프로그램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강연 프로그램은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도 무너지고 유럽 경제도 무너지고 하다 보니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사람들의 목마름이 컸던 거죠. 지식의 방향이나 진보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 'KBS N'이라는 회사가 지식을 기부하고 기부받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희망의 표현이에요. 저희가 다른 강연 프로그램하고 차별되는 건 출연자들이 지식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출연료도 기부한다는 점이거든요. 비율은 스스로 조절하시는데, 전액을 기부하신 분도 있죠. 그런 기획의도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들만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자 해요.

제목에 '콘서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일반적인 강연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모니라고 생각해요. 주고받음의 기운이 중요한 거죠. 강연자의 이야기를 듣는 방청객의 확실한 리액션을 포함하여 전체가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강연자와 방청객뿐 아니라 시청자, 그리고 이 지식이 기부된 모든 곳들의 균형이 맞춰지고 하모니를 일으켰을 때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콘서트'가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연자와 방청객뿐 아니라 시청자, 그리고 이 지식이 기부된 모든 곳들의 균형이 맞춰지고 하모니를 일으켰을 때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콘서트’가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출연자죠. 어떤 강연자를 섭외할 것인가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에요. 단지 대중한테 인기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사회가 나아가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연자를 찾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화술이나 소통방식도 중요해 요.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유명인들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대중 앞에 나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 우가 많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것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방송되고 마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봐도 다가올 수 있는 클래식한 이야 기들을 많이 꼬집어내면 좋겠어요. 고전은 언제 읽어도 가장 앞선 느낌이었어요. 그 런데 사실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절충이 분 명히 필요하죠. 방송이 대중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와, 그들이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의 무게중심을 찾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자면, 10여 년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대학 졸업 이후 정기적인 배움이 없었던 탓에 바닥이 느껴지는, 재충전할 시기가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 욕구가 저만큼 달려온 사회인들의 일반적인 욕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대중적이지 는 않아도, 인문학적인 강연 시리즈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중과 지식, 그 사이에서 정말 자유롭게 노닐 수 있는 출연자라면 참 좋겠죠.

한 회의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두 달 전에 섭외를 하고요, 출연자와 제작진이 미팅을 통해 이야기를 조율해가 는 과정을 한 달 정도 잡고 있어요. 콘셉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정해 요. 보통 강연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주제를 제시하시죠. 저희가 정한 주제 와 그것을 같이 조율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요. 시청률을 기대하지 않고 기획했던 프로그램인데도요. 사 실 다큐멘터리 채널은 시청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지만 꼭 보는 분들이 분명 히 있죠. 그런 고급 시청자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 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시청률이 오 락 프로그램이나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보다 잘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계속

문의가 와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마름이 있었구나 싶어요. 저는 정말 아까운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어 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인생의 심포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고 바라세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고민을 생각 하고 지나칠 수 있는 터가 되면 좋겠어요. 누구나 한 번씩 와 서 그들의 공통된 고민들을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까요. 완전히 해결해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심터가 되면 좋겠어요.

1·2 <지식기부콘서트>은 세상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연자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연료도 함께 기부한다.





1

문제제기도, 대안도 모두 함께!

〈청춘 콘서트 2.0〉 현장
& 그밖의 지식 콘서트들

● 아프니까 콘서트다. 멘토 열풍을 몰고 온 김난도 교수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안철수, 박경철이 함께했던 〈청춘 콘서트〉를 직렬연결한 뒤 능처서 말하자면 이렇다. 〈청춘 콘서트〉는 88만 원 세대를 지나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터널에서 빠져나올 길 없는 아픈 청춘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표적 지식형 콘서트인 〈청춘 콘서트〉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고,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가 됐다. 그리고 이제 김제동과 김여진 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청춘 콘서트 2.0〉은 공감과 위로를 넘어서 ‘약간의 분노가 있는’ 콘서트로 진화하고 있다. 아름다운 청춘들이 함께한 그 경쾌한 분노의 현장을 공개한다. 또 청춘콘서트 외에도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형 콘서트들도 소개한다.

청춘을 공감하다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 청춘들에게 이런 물음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다. 턱없이 비싼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빚부터 지고 시작하는 대학생들이라니. 어렵게 취직을 해도 그나마 비정규직이고, 학자금 대출을 갚다 보니 돈이 모이기는 커녕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하다. 이것도 취직이 되었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다. 10년 동안 숨만 쉬고 돈을 모아 집다운 집에서 살게 된다 해도 사실 내 것이 아니다. 전세다. 부모님의 은총 없이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걸 분명 구조적인 문제다. ‘청춘의 공감대’ 김여진은 이 아픈 청춘들을 불러 모아 함께 고민을 나누자고 말한다.

12월 14일, 하자센터에서는 국회의원 김진애와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이주원, 그리고 청춘패널이 함께하는 〈청춘 콘서트 2.0 김여진의 Action 토크〉가 열렸다. 주제는 ‘주거’였다. 사전에 ‘대한민국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고, 4,000명 이상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 비정규직, 등록금, 취업,

© 최성열

© 최성열



2



3

1·2·3 12월 14일 펼쳐진 <청춘 콘서트 2.0 김여진의 Action 토크>. 멘토의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청춘패널, 관객과 함께 실제 'Action' 방안을 모색한 콘서트였다.

주거, 물가, 청년 정치참여의 여섯 가지 의제가 선정되었다. 이 의제에 대해 매회 멘토가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청춘패널을 선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객과 함께 토론하며 'Action' 방안을 모아내는 방식의 콘서트다.

무대는 처음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스물두 살 청년래퍼 padro가 등장해 본인이 만든 노래 <금요일 오후>를 공연했다. 첫 직장인 보험회사에서 아침마다 상사에게 커피 타주고 밤이면 전철로 돌아오는 생활의 애환을 담은 곡이다. 그런데도 리듬은 그저 경쾌하다. A-yo.

이날의 청춘패널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김은진과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조영훈이었다. 이들이 먼저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쪽방과 고시원, 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던 경험담을 들려주고 6.2%밖에 안 되는 기숙사 수용률,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한 월세 비율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뉴타운 정책으로 소형 저가주택이 2만 호나 줄었다고 한다.

청년들은 신보릿고개를 겪는다. 취업, 노동, 해고의 고리를 끊기 힘든 상황에서 해고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바로 신보릿고개다. 조영훈 팀장은 고시원에 누워 있으면 영혼이 쪼그라드는, 마치 관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고백했다. 서울 전체 1인 가구의 45%가 고시원에 산다.

김진에 의원은 청년 특화 주택정책이 전무한 점을 들면서 소형저가임대주택 활성화와 인상을 상한제 등을 제안했다. 이주원 사무국장은 저성장 시대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배제, 낙오로 이어지면서 월세입자가 타워팰리스 거주자보다 소득 대

비 주거비를 더 쓰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고발한다. 집의 부재가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고, 공공성을 지닌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도 레디, 액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박한 자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하고 행동하고 요구해야 우선순위가 된다. 견디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라는 지상명령만이 이 시대에 가장 유효하다. 더 과격하게는 '스캇 운동'을 벌이지는 의견도 나왔다. 버려진 집이나 비어 있는 건물을 점거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저항운동이다. 당당하게 스캇 운동을 하자, 물론 현행법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더 당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행위의 과격성이 부담스럽다면 대학가의 모텔이나 러브호텔을 싸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다들 한껏 웃어제꼈다. 김진에 의원은 큰 웃음 후에 그래도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현실적인 방안을 얘기하며 힘을 실어주었다.

간간이 웃음이 터져나올 만큼 멘토, 청년패널, 관객들은 격의 없이 의견을 개진해나갔고, 김여진의 진행은 훌륭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Action 제안이 이루어졌다. 임차인 주택 조합을 만들자, 대학에 기숙사를 요구하자, 보증금 담보 대출을 관철시키자, 청년은행을 만들자 등이다. 실제로 청년유니온은 오는 6월 청년연대은행을 출범할 예정이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이사품앗이, 주거장학금, 반찬강습, 부동산QnA 배포 등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작지만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거문제를 재미있게 풀기 위해,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과정도 소중하다. 청춘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직접 대안까지 만들어간다. 지식형 콘서트는 이제 액션 콘서트로 나아가고 있다. <무릎팍 도사>에서도 가장 팡 터지는 얘기는 BGM과 함께 흐르는 '액션!'을 타고 튀어나오지 않던가. 그러니 이제 우리도 레디, 액션!

<10월의 하늘>부터 <지식나눔콘서트 아이러브[人]>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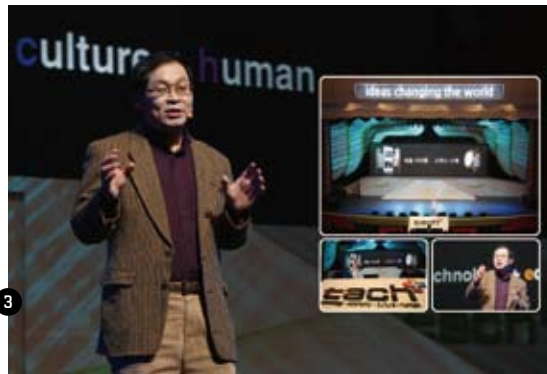
10월에는 하늘이 열렸다. <10월의 하늘>은 전국 중소도시 도서관에서 해당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도서관 과학강연 행사였다. 기획에서 사전준비, 강연, 행사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기부자들의 재능나눔으로 이루어졌다. 과학자들의 작은 도시 강연회인 <10월의 하늘>은 따뜻한 교감이 함께하는 지식형 콘서트였다. <10월의 하늘>은 2010년 9월,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제한한 지 두 달이 채 안 돼 행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수 윤종신, 정지찬이 주제곡을 만들고 일러스트레이터



1



2



3

들이 포스터와 강연 자료를 만들어 기부하는 등 강의장 밖에서도 재능기부가 이어졌다. 기적은 가까이에 있었다.

2011년 2회째를 맞은 이 지식형 콘서트는 전보다 참여 도서관 수, 참여 인원이 크게 늘었다. 첫 회와 다르게 과학의 저변을 넓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설가, 기업인 등의 특별 강연도 마련되었다. 소설가 김탁환, MBC PD 김민식, 엔씨소프트 김택진, 윤송이 대표 등이 참여한 덕분이다.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난다. 과학의 즐거움을 전하고 받는 뜻깊은 나눔이 이루어진다. <10월의 하늘>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연과 우주, 생명이 주는 신비와 경이로움을 전한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하려 한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10월의 하늘>이라는 이름이 어쩐지 익숙하다면 영화 <오토버 스카이> 때문일 것이다. 탄광촌 소년이 우연히 구소련의 로켓 발사 장면을 보고 꿈을 키우다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로켓 공학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소년이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이 그저 뉴스 한 꼭지였듯이, 우리 청소년들도 거창하지 않은 계기에서 영혼을 뒤흔드는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재능기부자들 대상 청소년이든 나눔이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몸소 깨닫게 된다. 그 속에 피어나는 희망이 기쁘다.

<테크플러스 2011>(tech+2011)은 창조, 융합, 개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중의 지적 감성 충족을 위해 마련한 지식형 콘서트였다.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작과 명품을 탄생시킨 자신만의 비밀을 20



4

분간의 강연을 통해 밝혔다. 비보이 뮤지컬 〈마리오네트〉 등의 특별 공연도 함께 펼쳐져 새로운 형식을 선보였다.

초청 강연자로는 오디오사 '마란츠'의 브랜드 고문 켄 이시와타, 예술서적 전문출판사 '애슬린'의 대표 프로스퍼 애슬린, 전신마비 환자가 눈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 '아이라이터'(Eye Writer)의 개발자 제임스 파우더리 홍익대 교수,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대가 장 폴로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켄 이시와타는 장인정신의 결정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마란츠의 탄생 비밀을 밝혔고, 클레이 애니메이션계의 선구자 장 폴로는 작업과정을 통해 느낀 느낌의 미학을 이야기했다. NASA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임스 파우더리는 직접 아이라이터의 시범을 보이며 기술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의 놀라움을 들려주었다.

이제 화두는 인문학이다. 통섭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인문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들을 위해 플라톤 아카데미와 SBS가 손잡고 지식형 콘서트를 열었다. 이를하여 〈지식나눔콘서트 아이러브[人]〉, 인문학 베스트셀러 저자 4인이 지식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펼치는 강의쇼다. 기존의 틀에 박힌 강의형식을 벗어나 작곡가 김형석이 뮤직파트너로 참여하고, 매회 다른 뮤지션들과 함께 음악이 곁들여진 새로운 참여의 마당을 연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의 저자 김정운 교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의 저자

- 1 통영의 도서관에서 진행된 과학 콘서트 〈10월의 하늘〉.
- 2·3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강연한 〈테크플러스 2011〉.
- 4 인문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저자 4인이 펼친 〈지식나눔콘서트 아이러브[人]〉.

김상근 교수,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교수가 흔쾌히 동참했다. 다른 지식형 콘서트와의 차이점이라면, 콘서트 진행 후 SBS TV에서 방영된다는 점이다. 2012년 초에 방영할 예정으로, 이후에는 강의를 DVD로 제작, 무료로 배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이라고 한다. 마음이 있어도 몸을 쉽게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반길 만하다.

청춘 콘서트 <http://cafe.daum.net/chungcon>

(온라인 카페에서 접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

대상 20대 이상 | 참가비 무료

10월의 하늘 www.nanumlectures.org

테크플러스 2011 www.techplusforum.com

지식나눔콘서트 아이러브[人] <http://tv.sbs.co.kr/mentor>



이 남자의 이분법

화백

바탕재



● 그를 처음 본 것은 1990년대 중반, 〈한겨레〉에 들어가서였다. 편집국 구석 자리에서 그는 매일 만평을 그리고 있었다. 권력과 세태를 날카로우면서도 웃기게, 그러면서도 때론 슬프게 포착해내는 그의 한 컷 만평은 오래전부터 장안의 화제였다. 마감이 다가오면 머리를 움켜잡고 고민해가며 하루하루 승부하는 그의 모습은 지켜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도 그는 늘 웃고 있었다. 웃는 얼굴로 언제나 그림을 그렸다. 몇 년 뒤, 그는 8년 동안 몸담았던 〈한겨레〉를 떠났다. 우리나라 전통 설화 ‘바리공주’ 이야기를 꼭 멋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겠다고, ‘한국 최고의 시사만화가’란 자리를 버리고는 ‘오돌또기’란 회사를 차려 애니메이션 작가로 변신했다. 정상에 있을 때 떠나라는 말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은 그때 처음 봤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전에 없던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9시 메인뉴스에서 ‘시사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 신문 그림판 안에 들어 있던 그의 캐릭터들이 화면을 누비며 만화와는 또 다른 재미로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겼다.

다시 또 얼마가 지났을까, 이번엔 그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가르친다는 거다. 원래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던 그에게 딱 맞는 일이겠다 싶었다. 예상대로 그는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간판스타 교수로 10년째 즐겁게 일하고 있다. 그런 그가 초정밀 렌즈 같은 눈으로 몰래 몰래 스케치북에 옮겨놓은 그림일기가 모여 얼마 전 책으로 나왔다. 이름하여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수천수만 컷 중에서 골라낸 그림에, 그림 숨겨놓은 글을 보낸 그림에세이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영화배우 송강호 씨처럼 유명한 이도 있지만 그가 그린 얼굴들 대부분은 우리가 늘 만나는 이들이다. 이들의 온갖 모습을 보다 보면 절로 웃음 짓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 그림은 손바닥만 한데 그 안에 세상이 있다.



책에 적은 말이 인상적이다. “사람을 그리면 사람이 소중해지고 꽃을 그리면 꽃이 소중해지고 돌멩이를 그리면 돌멩이가 소중해진다.”

그림을 그리면 참 좋은 일이 많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뭔가를 그린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그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려는 대상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림을 많이 그리니 이 세상이 소중한 것으로 가득 차버리더라.

어른이 되어 그리는 그림일기, 재미있을 것 같다.

우연히 한 만화가 지망생이 평생 그린 그림일기를 모아서 책을 봤다. 참 재미있게 읽으면서 나도 그림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문사를 나온 뒤로는 그림 연습을 많이 못 해서 다시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터이기도 했고, 사람들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알지만 남모름 콤플렉스에 늘 시달린다. 처음엔 아주 싹 종이였다 그랬는데, 몇 년 하다보니까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그런 나 자신에게 스스로 좀 대접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스케치북을 좋은 것으로 사주기 시작했다. (웃음) 묶는 끈이 달린 스케치북인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 끈을 잘라서 모은다. 마치 옛날 전장에서 적의 수급을 베듯이. (웃음) 몇 년 지나니까 잘라 모은 끈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서 계속 모으고 있다.

‘손바닥 아트’란 말이 재미있다.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틈틈이 그리기에는 손바닥만 한 게 제격이어서, 그리고 그림이 손바닥만 해도 아트가 된다는 뜻에서 지어봤다. 하다보니까 손바닥만 한 것으로도 충분히 예술이 되더라. 이중섭 그림 중에는 담배갑 싸던 작은 은박지에 그린 것들도 많잖은가. 작은 그림으로 큰 그림에 도전해보자고 생각했다.

손바닥 그림 전도사라고 들었다.

암암리에 ‘손바닥 그림 운동’을 하고 있다. (웃음) 왜 노래는 학교 졸업한 뒤에도 노래방에서 즐겁게 부르는데 그림은 그리지 않느냐고, 우린 그림 그리기를 즐기지 못한다. 그림이라고 하면 겁부터 먹게 되니까.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엽서 크기만 한 작은 그림을 장난치듯 그리자는 거다. 낙서도 좋고, 메모도 좋고, 편지도 좋고, 일기도 좋고, 낙서만 하더라도 그게 내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 흔적이다. 1cm짜리 선 하나만 그어도 그게 작품이다. 내가 집중해서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우리나라 학교 미술 수업은 너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잘 그리는 그림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 잘 그리는 사람은 따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그리면 된다. 우리 삶은 특별한 것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또

**“우리 삶은 특별한 것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본질은, 자기만의 소중함을 혼자
듣고 보고 생각하기가 아까워 나누려 애쓰는 것이다.”**

원래부터 특별한 것이 있지도 않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정서와 가치가 담겨 있으면, 그림의 소재나 대상에 상관없이 새로운 특별함과 소중함이 만들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본질은, 그러한 소중함을 혼자 듣고 보고 생각하기가 아까워 나누려 애쓰는 것이다.

손바닥 그림으로 이웃을 돕는 전시회를 정말 많이 열었다. 몇 차례나 했는지 기억하나.

몇 번인지 모르겠다. 처음엔 우연이었다. 동국대 유지나 교수가 텔런트 장자연 씨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검찰이 뭘 밝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원혼을 달래 줄 길이 없으니 우리가 한풀이 곳이라도 해주자며 기금 마련 전시회를 하자는 거다. 그 말을 들었는데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내 그림을 컬러 프린트하고 에디션을 찍어 팔아 그 돈을 기증하기로 했는데, 무척 잘 팔린 거다. 그제 소문이 나서 계속 연락이 온다. (웃음) 장애인 축구단, 다문화 가정, 지진피해 돕기 등등. 의미가 좋으니 많이들 사주시는 것 같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 (웃음) 전시회는 해도 원화는 잘 안 팔

던데.
나는 내 그림 원화 팔기가 싫다. 아까우니까. (웃음) 처음엔 몇 점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내 그림을 계속 봐두고 볼 수가 없어 아쉬웠다. 나중에 내 그림 전시관을 짓는 게 꿈이다. 그래서 계속 모으고 싶다. 나 말고 다른 그림쟁이들 전시관도 만들어주고 싶다. 내 친구 이희재 화백 고향이 완도인데 거기 폐교 하나 사서 이희재 만화박물관을 만드는 거다. 만화가 오세영이는 공주에, 이두호 선생은 대구에, 이현세는 경주에, 김수정은 진주에... 우리가 통영에 가면 경치 보고 난 다음 박경리, 윤이상, 김춘수 이런 분들 기념관을 보러 가게 되잖나. 사람만 한 문화가 없다. 그런 곳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 한다.

교사로 시작해 시사만화가로, 애니메이션 작가로, 교수로 계속 직업도 바뀌었고 만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많이 펼쳐왔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건가.

처음엔 교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림쟁이는 벼랑 끝에 있어야 치열하게 그리는데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그렇지 못할 것 같아 교사 자격증을 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을 찍은 영화감독 배용균이 내 동창인데, 그 친구가 “교사를 하면서도 그리면 되니까 일단 따라”고 권해서 결국 교사가 됐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거다.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즐겁고, 수업을 마친 뒤 교무실에서 넘어가는 노을을 보면 정말 큰 행복감이 밀려왔다. 그러다보니 그림을 안 그려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나는 살 데가 없는데, 너무 행복해서 안 되겠다 싶어 교사를 그만뒀다. 그 뒤 그림만 죽어라 그리려고 <한겨레>에 들어갔고, 정말 죽도록 그렸다. 원래 내가 농땡이 잘 피우고 게으른 놈인데 신문사 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몸을 던지는 것, 그게 창조다.
‘돈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것’,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것’, ‘아무짝에도 쓸데없는데
해보고 싶은 것’, 창조는 모두 그런 것들에서 탄생한다.”

여가서 정말 경상도말로 ‘썰리 돌려뵈’ 거다. 평생 그렇게 그린 적이 없었다. 신문에는 마감이 있어서 초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시간이 몰아대면 평소보다 10배 정도의 능력이 생긴다. 이걸 8년 하고 나니 완전히 일중독이 되었고, 그게 지금도 안 풀리고 있다.(웃음) 나중에 신문사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 보니 신문사에서 한 시간이면 할 일을 일주일씩 하기에 너무 놀랐다.

명문대 미대를 나와 만화가가 되는 일이 당시만 해도 드물었는데 어렵지는 않았나. 요즘 젊은이들은 무척 불안하고 괴로울 거다. 본인 경험을 좀 이야기해달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해야 후회하지 않는지, 뭘 해야 잘할 수 있고 뭘 해야 행복할지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자기를 찾게 되는 것은 좋은 환경에 있

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인 것 같다. 백수가 되거나 좌절했을 때처럼. 내 경우에도 그랬다. 고등학교 시험에서 1류 학교, 2류 학교 다 떨어졌다.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나는 얼마나 스스로 한심한지... 슬픈데 시간은 남아돌고, 그래서 혼자 틀어박혀 114쪽짜리 만화책 한 권을 그렸다. 그때 저력이 생긴 거다. 1년 짧은 게 내겐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바로 좋은 직장 가서 계속 바쁘게 살면 자기를 찾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인생은 길기 때문에 조금씩 말고 어떤 것이 자기다운 것인지, 어디에 최고의 기쁨이 있는지 찾아서 가야 한다. 나는 항상 “지금 천한 곳에 귀한 것의 씨가 있다”고 믿는다.

자전적 이야기를 쓴 책 <만화 내 사랑>을 보면 만화가계 아들로 태어나 만화가 천대받던 시절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당시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만화만 유통되는데도 학교에선 만화방 가지 말라고 하고, 경찰은 건수 채우기 위해 괜히 만화책을 압수하고 만화가계 주인 파출소로 데려가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고 만화를 찢고 불 지르고... 마치 범죄자처럼 천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 역시 결혼할 때 만화가란 말을 못하고 삽화가라고 했을 정도다. 나는 만화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만화는 천시당하는 현실이 마치 천국과 지옥을 같이 보는 것 같았다.

대학입시 결과가 발표되기 전날, 어머니가 경찰 죽결에 넘어가 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 죄가 없으니 가서 장사 계속하라고 해서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그날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그 순간 길거리에 뛰쳐나가 만화방 아들도 서울대 합격했다고 외치고 싶더라는 거다. 만화를 보면 애 버린다고들 하는데, 난 만화방 아들이어서 만화를 수만 권이나 보고 자라면서 만화에서 상식도 익히고 우정의 가치도 깨닫고 수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결국 나도 만화가가 된 것이고, 난 만화가란 이름이 정말 영예롭고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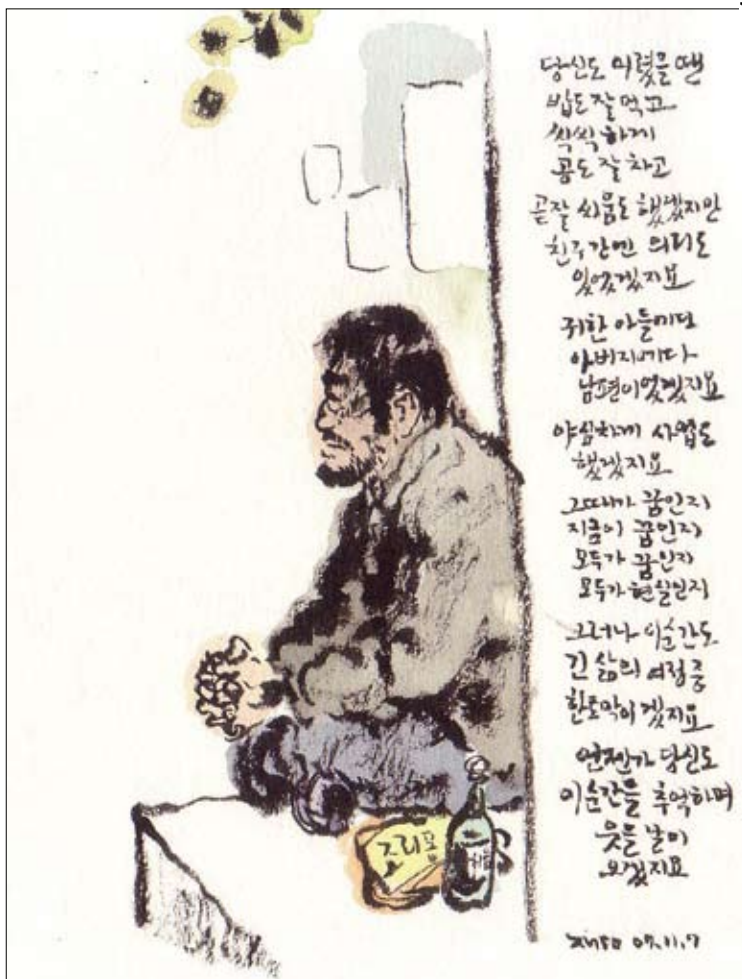
만화가계 전체와 관련된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만화 문화 운동에 앞장서왔다.

나도항이니 김동인이니 하는 소설가는 교과서에 실리는데 왜 만화가는, 영화감독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느냐고 늘 주장해





왔다. 지금은 어떤가? 2000년대 들어 내 만화가 국정교과서에 실렸다. 환경오염으로 살 곳을 잃은 개구리 엄마가 죽는 지식 올챙이를 안고 있는 그림을 <한겨레>에 그렸는데 중2 국어교과서에 들어갔다. 지금도 내 만화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 드디어 만화가를 천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내 꿈이 이루어진 거다. 순수 회화로 먹고사는 사람, 글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순수 예술 분야에서 취직해 다른 일 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실로 극소수다. 만화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화만 그려 먹고살고 있는 직종이다. 만화가 천하다고 자기 직업으로 삼지 않고 꿈을 버렸다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천하게 여기더라도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걸 믿고 나아가야 한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그림을 그린다. 창조의 비결은 뭔가?

제일 중요한 게 세상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애정이 강하지 않으면 창조를 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창조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온다고 치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오면 그냥 욕 안 들을 만큼만 집안을 정리하겠지. 하지만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집을 꾸밀 거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할까 온갖 생각을 하고 창조하게 되는 거다. 그냥 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 새롭게 해보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몸을 던지는 것, 그게 창조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돈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것',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것', '아무쪼록 쓸데없는데 해보고 싶은 것'들이다. 창조는 모두 그런 것들에서 탄생한다. 엉뚱하고 이상한 것을 돈 안 된다고 때려치우면 안 된다. 황당한 걸 황당하다 생각 않고 긍정

적으로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맞춰 안심하고 안주하게 된다. 거기서 더 나가려면 그런 생각을 꼭 깨야 한다.

사람이란 주제를 평생 다루고 있다.

사람만큼 흥미로운 게 없잖은가.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놀람과 기쁨을 주어 힘든 마음을 해소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사는 것 아닌가. 우리는 평생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산다. 그래서 사람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고 나쁘면 불행한 거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것도 사람관계 나쁜 것처럼 어렵지는 않다.

캐릭터처를 보면 알아서 잘 미화해주는 것 같다.(웃음)

내 별명이 성형외과 원장이다. 조금이라도 예쁘게 그려주니까.(웃음) 처음에는 사람을 그려도 모델에게 안 졌다. 아까워서, 그런데 부득이하게 줄 일이 생겼는데, 받은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다. 그걸 보는 나도 너무 기뻐고, 내 그림이 없어진 것 같지 않고 더 좋은 데 보관된 느낌이었을까. 그래서 주기 시

작했는데, 내가 더 행복하더라.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 아니라면 그림 부탁을 거의 다 들어준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냐. 그렇게 자꾸 그리니까 그림 실력도 늘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정 사진으로 쓰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한번에 여러 명을 그려줘야 할 때는 20초 만에 한 사람을 그릴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럴 때 더 잘 그려지기도 한다. 사람의 눈, 코, 입 크기는 자로 재어보면 실은 큰 차이가 안 난다. 차이는 약간인데 그 느낌은 정말 달라진다. 크다 작다, 진하다 연하다, 퐁퐁하다 가늘다의 느낌이 오래 하다 보니 바로 느껴진다. 특징을 잘 포착해 과장해서 잔혹하게 정말 잘 그리는 사람은 허영만 선생이다. 전에 나하고 시합이 붙었는데 내가 완전 박살나서 졌다.(웃음)

사실 나도 예전에는 허 선생처럼 확실하게 그렸다. 그러다가 미화해주는 쪽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 어느 식당에 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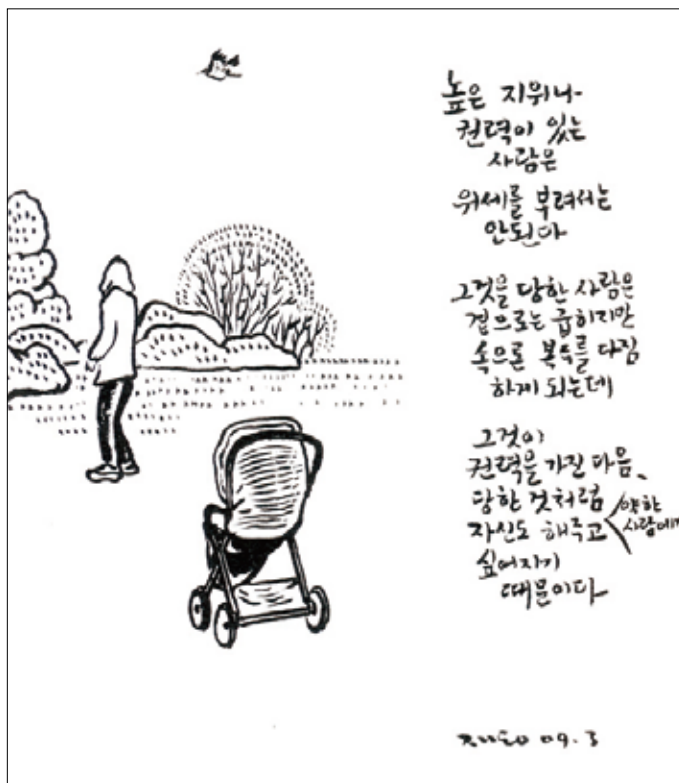
“사는 이유가 뭐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사는 것 아닌가.”

데 옆자리 사람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해왔다. 그 사람 특
징을 콕콕 찾아 그려줬다. 그이가 그림을 받아자기 자리로 갔
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완전 대박’이라며 깔깔 웃음이 터지
고 난리가 났다. 그런데 그 팀이 간 뒤 옆에 있던 만화가 이희
재 씨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줬다. 그 사람이 일행들하고 웃기
는 했지만 나갈 때는 몰래 캐리커처를 구겨서 버리고 가더라
는 거다. 그때 많이 생각했다. 재미있게 웃자고 그린 것인데
본인이 상처를 받으면 이제 예술인가 놀러먹는 건가 말이다.
그 뒤로 예쁘게 그려주기 시작했다. 내 철학도 바뀌었다. 사
람 얼굴은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 사람은 그때그때 다른 사람
이 된다. 누군가와 만나면 그 만남으로 인해 바뀐다.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사람이다. 내가 그려주는 얼굴 그림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제3의 어떤 것이고, 그 사람이
내 그림처럼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최근 화장실 전시회를 계속하고 있다. 화장실에 자기 그림을 거는 것, 화
가로선 파격인데.**

5~6년 전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였다.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는데 변기 위 벽에 걸린 작은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잠시였지만 그 그림을 봤고 그 그림과 내가 대화했다. 이발소
그림이어도 어떤 느낌이 있었다. 짧은 순간의 판타지랄까. 정
말 솔직함이 있는 그림이었다. 그때 내 그림이 여기 걸려 있으
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그 뒤로 화장실에 내 그림이 걸리기
를 바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해서 화장실 전시회를 시
작했다. 세상에 그렇게 집중적인, 한순간 완전하게 작품을 보
게 만드는 전시공간이 또 어디 있겠나?

재작년에는 인사동 입구 화장실에 그림을 걸었다. 최근 부천
역에도 전시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다. 며칠 전에는 부천역 역
장이 “박 화백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라며 전화를 했다. 화
장실 청소부 아줌마가 갤러리를 청소하는 기분이라고 했다는
거다. 화장실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건데, 내 그림이 화
장실에 걸려 화장실이 아름다워지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
꿈은 전국 화장실을 갤러리로 만드는 거다.



●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과 생각으로 변해가면서도 한편으로 결코 변하지 않았다. 언
제나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그가 그리는 그림이 사람이란 것도 변함이 없다. 그를 직
접 보지 않은 이들은 모른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는지. 미술 거장부터 발
랄한 신에 만화가들까지 그림이 직업인 이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박재동처럼 그
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고, 앞으로도 못 볼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재
동은 그림 그리는 시간과 일상을 나누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차를 마시다
가도 그리고, 술자리에서도 그린다. 지하철에 앉으면 앞자리 사람을 그리고, 택시에 타
면 기사 아저씨를 그린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노점상을, 학교에선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그린다. 도대체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가능하다. 박재동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본다. 박재동은? 그가 얼굴을 그려준 사
람과 앞으로 그려줄 사람, 두 종류뿐이다. 그래서 난 그를 ‘변함없이 변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아니면 ‘변하면서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풍속화가’
라고 정의한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이 단원이나 혜원의 그림으로 남았듯, 먼 훗날 대
한민국 사람들의 삶은 박재동의 그림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글: 구본준 <한겨레> 책&지성탐장 문화부 기자로 오랫동안 일해왔다. 쓴 책으로 <한국의 글쟁이들> <두 남자의 집짓기> 등이 있다.

사진: 최성열 한여름의 청량한 사이다 한 잔 같은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 사진가.



이원재,
윤정섭(왼쪽부터).

‘나’와 ‘너’가 아닌

〈풍찬노숙〉의
두 주역

윤정섭 & 이원재

‘우리’의 연극

● 남산예술센터의 2012년 첫 시즌작 〈풍찬노숙〉이 1월 18일부터 2월 12일 까지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다. 〈풍찬노숙〉은 ‘괴물 작가’ 김지훈의 〈원전유서〉에 이은 두 번째 대작이라는 점에서, 또 그동안 극단 작업에 집중해온 김재엽 연출이 외부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대극장 작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남산예술센터가 처음으로 시도한 상주극작가 제도의 결실을 무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단발적인 작품 제작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작품의 구상, 집필, 발전 과정을 함께해온 극장과 작가와의 긴밀한 관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기대를 모은다. 그 과정의 일부로서 지난여름 이미 낭독공연으로 공연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기에, 〈풍찬노숙〉의 무대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크다.

〈풍찬노숙〉이 다루고 있는 것은 ‘코시안’, 즉 혼혈의 문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재 진행 중인 화두이자 향후 10~20년 뒤에는 민감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동시대적 문제를 고민하고 질문을 제시하고자 하는 남산예술센터의 지향점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작품이 던지는 문제의식의 규모나 이를 파고드는 시선에 있어서도 〈풍찬노숙〉은 일상극과 개인사가 주를 이루는 소극장 연극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연극도 사회도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버거워하고 있는 요즘, 〈풍찬노숙〉의 시선은 조금 더 먼 시점에서 벌어질 ‘지금, 이곳’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꺼내고 있다.

또한 〈풍찬노숙〉은 이러한 혼혈 문제를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신화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네 시간가량의 러닝타임, 20명에 가까운 대규모 출연진, 무대와 객석이 뒤바뀌는 공연장 등 물리적으로도 관객들에게 흔치 않은 관객경험을 선사할 듯하다.

이렇게 규모로 보나 의미로 보나 흔치 않은 프로젝트이기에 〈풍찬노숙〉의 주인공을 맡은 두 배우 윤정섭과 이원재가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 역시 엄청나다. 네 시간 가까이 무대를 지켜야 하고 두 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대사를 외워야 하며, 대학로의 내로라하는 배우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등 물리적인 부담감도 만만치 않지만, 한창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두 사람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지점은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적인 차원에서의 부담감이다.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 응보

윤정섭이 맡은 주인공 응보는 순대빛갈 민족의 울분과 희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똑똑하고 재주도 뛰어났지만 얼굴색 때문에 차별받고 세상에 나가지 못한 응보는 그러한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온다. 작품은 응보가 그렇게 돌아온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도 없다. 얼핏 보면 그저 조용하고 정이 많은,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유약한 청년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응보에게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걸고, 끊임없이 그의 주위로 몰려든다. 어릴 적부터 친구인 문계의 집요한 설득과 권유를 받아들이는 응보는 결국 순대빛갈 민족만의 고유한 역사를 위해 스스로 왕이 되어 전쟁을 이끌고, 곧바로 죽음으로써 신화적인 존재로 남는다.

응보 역을 맡은 윤정섭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그의 영웅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지점이다. 순대빛갈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인물이지만, 응보는 문계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아닌 따뜻하고 인간적인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들기보다는 밥을 나누어 먹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 순대빛갈 사람들이 응보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응보가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모습의 지도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윤정섭 역시 그러한 인간적인 응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연기하고자 한다.

“응보가 북을 치면서 외치는 멋진 대사, 세상에 대해 풀어놓는 강렬한 독백도 좋지만 그보다도 어미인 정갑과 같이 밥 먹는 장면, 개심과 펼치는 소소한 연애 등 인간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요. 무대에서 뭔가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작고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게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윤정섭은 연희단거리패에서 연극을 시작하고 성장한 극단의 차세대 간판 배우다. 김경익, 이승현, 지현준에 이어 연희단거리패 4대 햄릿을 맡았고, 〈세 자매〉 〈고아 뮤즈들〉 〈경성스타〉 〈맥베스〉 〈사중주〉 등 극단의 주요 작품마다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 극단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대표 주자로서 얼굴을 알렸다. 〈풍찬노숙〉은 그간 극단 작업만 해온 윤정섭의 첫 외부 작업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연희단거리패에서 열심히 생활해온 것들이 더 단단해지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렘과 동시에 긴장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을 통해 그동안 극단에서 배운 것들이 다른 연극에도 적용될 수 있고 잘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윤정섭은 이전에 이미 김지훈 작가의 대표작 〈원전유서〉 재공연에서 주인공 남전 역으로 무대에 섰고, 지난해 계림라극장 무대에 오른 ‘김지훈 3부작’에서도 〈길거리에 나았다〉와 〈판 앓고 뒤〉의 주역을 맡았다.

그렇기에 그는 김지훈 작가의 언어와 사상을 가장 많이 경험한 배우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말과는 완전히 다른 김지훈 작가 특유의 대사를 생생한 배우의 말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최근에 〈판 앓고 뒤〉을 공연하면서 윤정섭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번에 김지훈 3부작을 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하는 모든 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3부작에는 유난히 ‘나는 맨발이다. 나는 진실이었다’ 하는 식으로 ‘나는 뭐다’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진짜 ‘나’로 생각하면 그 감정이 나느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 아니라 ‘우리’를 붙이니까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판 앓고 뒤〉의 마지막 장면에 ‘나는 맨발이다. 이 시대를 걷고 있는 모든 구두는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대사가 있어요. 마지막 공연 날, 그 대사를 ‘나’ 대신 ‘우리’라는 생각으로 하는 순간 갑자기 감정이 울컥하면서 그동안 지훈 선배가 말해왔던 것들이 가슴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나니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이 부끄럽고 미안했었어요. 그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좋은 목소리로 대사하고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지요.”

윤정섭이 연극배우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예고 시절, 슬렁슬렁 지내면서 수업시간에 졸고 있던 자신에게 슬리퍼를 던지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던 한 연극선생님의 일갈 덕분이었다. 담임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안 들리던 이야기가 그 순간 귀에 확 들어오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제대로 연기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배우에게 남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윤정섭은 스스로의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한 것이다. 그 때문인지 그의 꿈 역시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명배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대에서 뭔가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작고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게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윤 정 섭



말 한 마디를 던질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배우. 순대빛갈 민족 모두의 울분과 희망을 대표하는 응보 역시 개인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존재에 가깝다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배우를 꿈꾸는 윤정섭의 응보가 더욱 기대된다.

행동하는 계략가, 문제

응보와 함께 작품을 이끌어가는 또 한 명의 인물은 그의 소꿉친구 문제다. 문제는 순대빛갈 민족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만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들도 고유의 신화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청년이다. 그리하여 그는 언덕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순대빛갈 민족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고, 그중 응보를 왕으로 옹립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한다.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옳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민족의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의 신념에는 분명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 악행과 선의의 신념이 뒤섞인 인물, 그래서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응보보다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역에는 국립극단 출신의 배우 이원재가 캐스팅됐다. 처음 대본을 읽고 느낀 것은 ‘두껍다’와 ‘오랜만에 연극다운 대본을 만난 것 같다’는 두 가지 생각이었다. 일단 그 두께와 엄청난 양의 대사에 놀랐



“작품에서 문제가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아무리 극중이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 원 재

고,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소극장 연극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강한 사회성이 담긴 연극이라는 점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매력을 느꼈던 것. 하지만 막상 연습이 시작되고 나자 그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두 페이지가 넘는 문제의 긴 대사나 관념적인 말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을 담아내는 인물의 시선이나 생각의 폭 자체가 자신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는 점이 압박해왔다.

“처음에는 대사를 외우는 게 힘들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대사들이 관념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만큼 실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작 그 말을 하는 내가 그만큼의 그릇을 가지지 못했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작가가 세계와 사회

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보다 훨씬 넓고 깊거든요. 작품에서 세상을 이야기하는 문제의 생각만큼 배우 이원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지점입니다.”

그래서일까, “세상에선 혁명을 한다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뭘 합니까?”라는 문제의 대사를 할 때마다 이원재는 마음 어딘가를 찢린 듯한 기분을 느낀다.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신문의 정치, 사회면을 읽으며 분노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오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반성하게 된다는 것.

“요새 FTA니 뭐니 해서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저도 그러한 부당거래

에 분명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직접 행동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이 작품에서 문제가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아무리 극중이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원재는 2004년부터 6년간 국립극단에 몸담으면서 〈떼도적〉 〈물보라〉 〈산불〉 〈귀족놀이〉 〈태〉 등 국립극단 레퍼토리 대부분의 무대에 함께 했다. 그는 자신이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국립극단에서 배웠다고 말한다. 장민호, 백성희 등 우리 연극사의 산증인들과 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차범석, 김동원 등 우리 연극계의 빛나던 별들이 졌을 때, 그분들을 운구하면서 마지막 길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의 배움이고 깨달음이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배우의 삶이잖아요. 그분들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배우는 게 많았어요. 연기의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연극은 무엇이고 배우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깨달은 셈이죠. 또 그곳에서 오태석, 이운택 선생님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연출가들과 작업하면서 매번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 국립극단에서 나온 뒤에도 이원재는 〈마지막 20분 동안 말하다〉 〈서울 나마스떼〉 〈이 형사님 수사법〉 〈화장〉 등 다양한 무대에서 꾸준히 공연해왔다. 특히 2010년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 〈서울 나마스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카밀 역을 맡은 바 있기에, 이번 〈풍찬노숙〉에서도 혼혈족을 맡게 된 인연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매번 공연을 통해 연극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선과 인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관객에게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느껴야 하니까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만 해도 〈서울 나마스떼〉 공연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또 그 문제의식을 놓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 공연을 위해서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했던 게 아닌지, 왜 나는 그에 따른 실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요즘 〈풍찬노숙〉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고 자신을 논리로 무장한 문제와 달리 이원재는 쉽사리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확신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아낀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말에는 허식이나 가식이 없다. 문제의 말 하나하나를 지금 자신의 살아 있는 언어로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괴리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원재는 문제라는 인물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다지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 그가 무대에서 쏟아낼 문제의 말이 그만큼의 무게와 의미를 지닌 채 관객들에게 오랜 울림을 남겨주기를 기대한다.



고민과 맘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화

〈풍찬노숙〉의 응보와 문제는 비록 서로 다른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지만, 차별받는 세상을 뒤엎고 순대빛깔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자신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사회와 민족에 대해 느끼는 치열한 책임감, 그것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라 할 수 있다.

배우 윤정섭과 이원재 역시 성격은 물론이거니와 그간의 경력과 경험 모두가 다르지만, 자신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풍찬노숙〉이란 거대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을 나누고 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작품이 보다 울림 있고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두 사람의 부담감과 책임감은 남다르다. 이들은 현재 매일 전체 연습이 끝나고 나서도 따로 밤까지 남아 연습을 계속하고, 연습이 없는 주말에도 연출과 함께 개별적인 연습 시간을 가지는 등 자신들의 몫을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맘을 쏟고 있다. 아직은 젊고 완성되지 않은 배우들이지만 이렇듯 치열한 책임감과 열정이 있기에, 두 배우가 무대 위에 써내려갈 〈풍찬노숙〉의 새로운 신화가 더욱 기대된다.

글_김주연 대학과 대학원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5년간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일했다. 현재는 문화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사진_오계록 누긋한 일요일 오전의 커피 한 잔을 꿈꾸며 일주일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진기자.

〈완득이〉 ‘핫산’ 역, 수딴 바느지

내가 바로 명품조연!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 〈완득이〉. 주인공 완득이를 마주칠 때마다 “자매니~임”을 외치는 ‘핫산’은 개성 강한 등장인물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교회에서 만난 완득이를 킥복싱의 세계로 안내하는 작지만 중요한 핫산 역을 맡은 배우는 수딴 바느지. 영화에서는 불법체류자였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서울 생활 8년차의 인도계 미국인이다.

극장에서 〈완득이〉를 봤는데, 핫산의 “자매니~임”이라는 대사에 관객들이 그야말로 ‘뽕’ 터지더라고요. 핫산의 독특한 말투는 직접 설정하신 건가요?
핫산 말투가 진짜 제 말투는 아니에요. 핫산의 한국어가 저처럼 유창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부러 서툰 말투로 연기했어요. 〈완득이〉 시나리오를 받고 캐릭터를 연구해봤는데, 핫산은 재미있고 밝고 인사도 잘하는, 누구하고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저 같은.(웃음)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언제나 유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극장에서 〈완득이〉를 열두 번 정도 봤는데, “자매니~임”이라는 제 대사가 나올 때마다 관객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웃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잘되어서 알아보는 사람도 많겠어요.

최소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완득이는 아니지만 저를 가리켜 “완득이야, 완득이!”라며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이런 신기한 경험을 매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기가 좀 올라간 것 같고.(웃음)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LG전자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최근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했어요. 전공인 컴퓨터공학을 살려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요.

직장생활하면서 영화 촬영까지,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함께 해내신 거예요?



영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내건 조건이, 일에 방해 안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다행히 스태프와 배우들이 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셔서, 제 분량은 모두 주말이나 늦은 밤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 있었어요. 감독님은 물론이고 유아인, 김윤석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저를 위해 스케줄을 맞춰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배우들과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말이에요. 인생에 한 번 올까말까 한 기회를 잡은 듯했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기했어요.

본업이 배우도 아닌데, 〈완득이〉 출연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SNS를 통해 알게 된 캐스팅 디렉터가 추천해줘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감독님이 제 사진을 처음 보시곤 “콧수염이 딱 핫산”이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웃음)

〈완득이〉가 첫 작품은 아니라면서요.

영화 〈싸움〉이 제 데뷔작이에요.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을 맡아 딱 한 장면 출연했어요. 사실 제가 거기 나왔다는 건 친구들만 알아요. 그 이후로 4년간 조용히 지냈죠.(웃음) 케이블TV의 공익광고 등에 출연한 적은 있는데, 영화 출연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연기를 본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연기는 회사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하고 싶어요. 물론 '이 일을 직업으로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본업을 배우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

을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저는 엔지니어라는 제 직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기도 하고요. 연기는 주연보다 작지만 개성 강한 역할을 꾸준히 하고 싶어요. 카메오도 좋고, 예능 프로그램의 게스트 같은 것도 좋고요.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세요?

미국드라마 〈오피스〉 아세요?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시트콤인데, 거기 나오는 '드와이트' 같은 특이한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똑똑한 척하지만 늘 동료들에게 놀림만 당하는,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저는 그런 코믹한 역할이 많이 끌리더라고요. 요즘 외국인 직장동료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니, 제가 그런 역을 맡는다면 현실감도 있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영화 속 핫산과는 달리 우리말을 상당히 잘하시는데요, 처음 한국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한국어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한국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대학을 샌디에이고에서 다녔는데, 그때 룸메이트가 한국인이었어요. 그 친구 덕에 핑클과 S.E.S, 베이비복스를 알게 됐고 한국드라마에도 완전히 빠져들었죠. 〈토마토〉 〈이브의 모든 것〉 〈별을 쏘다〉 같은 드라마를 모두 챙겨봤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룸메이트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보통 모국어는 그냥 할 뿐이지 배우는 방법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제게는 그 친구가 완득이의 '동주 선생'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제가 영어로 문장을 적으면, 친구가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알려줬어요. 문법을 따지기도는 그냥 그 표현을 익히려려고 노력했죠. 한영사전과 옥편을 통해 단어도 체계적으로 공부했구요.

한국에 언제 처음 오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2000년에 처음 왔어요. 미국에서 컴퓨터와 관련한 좋은 직장도 잡았었는데 포기하고 오게 됐죠.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에서 학원강사를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러다 지금의 아내도 만났구요.

아내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완득이와 핫산처럼, 저희도 교회에서 만났어요.(웃음) 6개월 사귀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빨리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한동안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한국의 하이마트 같은 가전제품 전문 매장에서 일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한국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영화 〈완득이〉에 출연한 수딴 바느지. 교회에서 만난 완득이를
킥복싱에 입문시키는 '환산' 역을 맡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에도 돌아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하는 일은 그러니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웃음) 2개월 후에 캘리포니아 패서디
나에 있는 꽤 좋은 직장을 구하긴 했지만요. 그곳에서 2년 2개월
간 일했는데 그동안 아내를 딱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6개월 만나고 떨어져 지냈으니, 정말 보고 싶으셨겠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내를 초청하기 위해 미국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또 한국에 있는 회사도 함께 알아보았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이 돼 한국에 들어와 결
혼식을 올렸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LG전자로 이직했거
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에 정착
한 이유가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한국이 좋더라고요. 일단 한국어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요. 모르는 단어를 배워나가는 재미도 있고, 또 요
즘엔 한국 속담 공부에도 빠져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
다'라는 속담도 최근에 배웠어요.(웃음) 입맛도 한국사람이 다 되
어서,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육회예요. 처음에는 불고
기 같은 달달한 맛에 끌렸는데, 이제는 담백한 생고기가 더 좋더
라고요.

한국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가장 좋은 점을 꼽자면, 조금 뜬금없을지 모르지만 조조영화를
꼭고 싶어요.(웃음) 조조영화는 한국에서 처음 접해봤어요. 반값
밖에 안 되는 요금에 중독할만하잖!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조조

영화를 보고 나면 하루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웃음) 한국
은 극장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아날
로그 영화가 많은데 한국은 디지털 영화가 대부분이고, 또 시설
도 좋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동네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극장, 편의점, 마트 같은 편의시설들이 동네마다
들어서 있으니 멀리 나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
요.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
도 좋고요. 대중교통이 발달한 덕에 조금 떨어져 살아도 만나기
어렵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자주 찾는 동네나 장소가 있으세요?

이국적인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이태원을 찾았고요, 아기자기한 커
피숍이 많은 가로수길도 좋아해요. 또 분당에 사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강남역에도 자주 가고요. 교통이 편해 모두 모이기가 쉽
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사는 사당동이 서울에서 제일 좋은 동
네인 것 같아요. 편리한 대중교통 덕에 서울 어디서든 '옆의 옆의
옆 동네에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웃음) 결혼하고부터 지
금까지 꼭 그곳에 살고 있는 이유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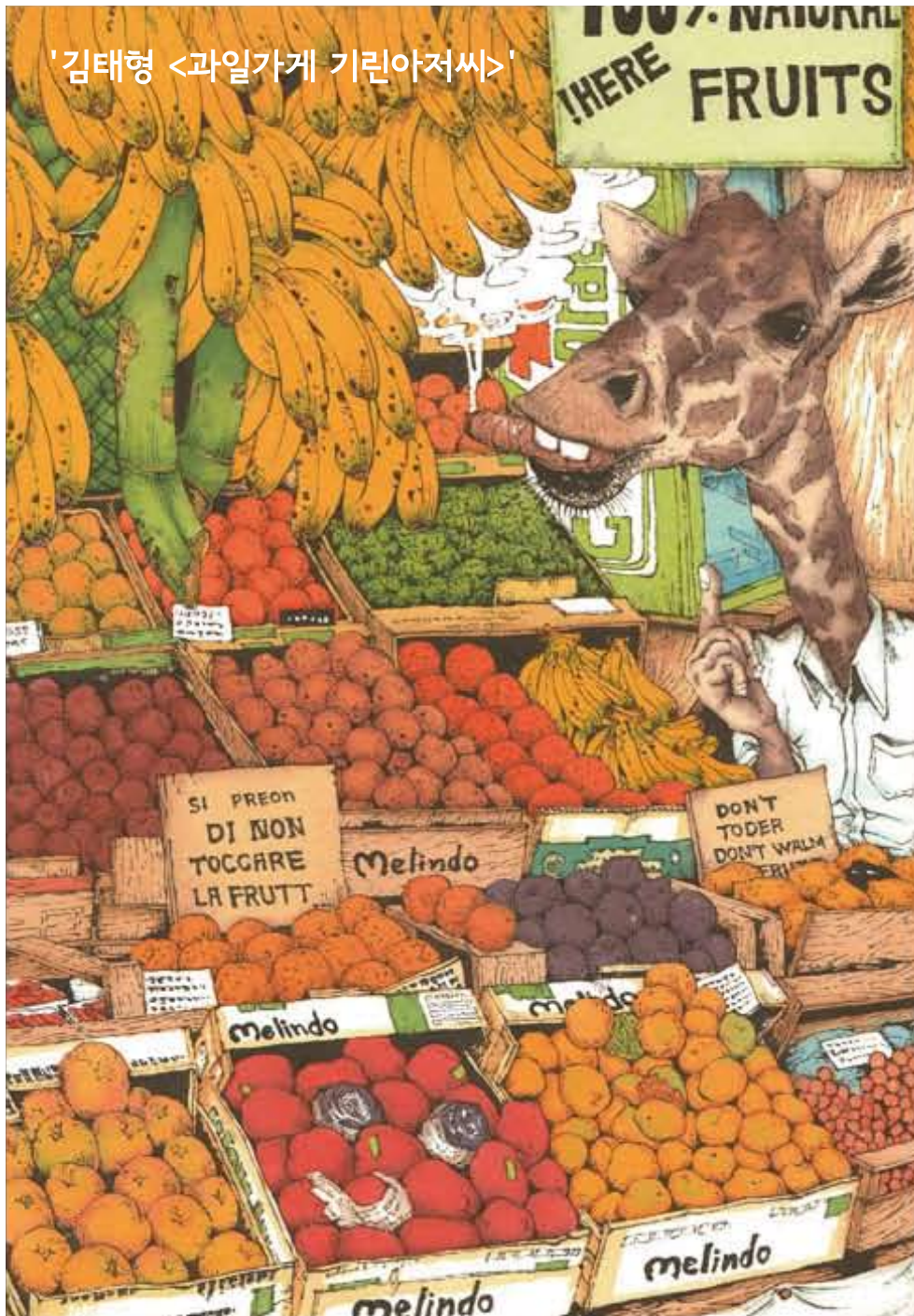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실 생각이신가요?

한국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당분간은 미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서 재미있게 생활하는 걸로 보답하려고요. 옮긴 지 얼마 안 된 직
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완득이〉 같은 좋은 작품 만나서 배우
로도 계속 활동하고 싶어요.

글. 윤현영 여행 잡지 기사를 거쳐 현재는 독립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시골벽적인 도시의 다채로운 모습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좋아한다.

사진. 손홍주 '세상은 어떤 사진 같아'라는 책의 제목만 정해놓고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은 사진가이자, 할 줄 아는 게 사진뿐이기도 한

'김태형 <과일가게 기린아저씨>'



Program1

● 예술체험전시

<나의 특별한 동화이야기>

- 기간: 2011.12.28 - 2012.02.29
-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밭'
- 참가비: 무료
- 전시관람: 시민 누구나
- 워크숍참가: 6-12세 어린이
- 매주 금요일(11:00, 14:00, 16:00)
연령별 분반, 회당 10명

Program2

● 가족 대상 뮤지컬 워크숍

<둥글게 둥글게>

- 기간: 2012.01.07 - 02.04
- 매주 토요일 2회(10:30, 14:00)
-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싹'
- 대상: 6-10세 어린이 동반 가족
(총 20명 내외)
- 참가비: 무료

Program3

● 학부모 대상 겨울방학 특강

<예술로 키우는 우리 아이>

- 01.04_ 김유미(서울교대 교수)
- 01.17_ 서천석(소아정신과 전문의)
- 01.31_ 윤현옥(aec비빔팜 대표)
- 02.15_ 손채수(초암교육예술연구소 소장)
- 시간: 10:30 - 12:00
-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밭'
- 대상: 학부모 50명
- 참가비: 회당 3,000원

Hi! Seoul
SOUL OF ASIA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CREATIVE SEUL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936-4번지 ● 문의전화: 02-871-7400, 7417

맛의 신천지, 연남동을 아십니까?

붕가붕가레코드 고건혁 대표의 연남동 연가



‘붕가붕가레코드’라는 이름을 내걸고 처음 인디음반 제작사를 시작했을 때, 인디음악의 본거지인 홍대 앞이 아니라 굳이 봉천동을 택한 것은 평소에 죽치고 있는 학교 근처를 벗어나기가 귀찮았던 까닭도 있지만, 사실 홍대 앞이라는 곳에 주눅들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90년대 중반, 인디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한 이래 홍대 앞은 음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색색의 머리를 하고 코와 귀에 이런저런 걸이를 한 자유로운 영혼들 사이에 있노라면 스스로가 촌놈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느껴졌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서 홍대 앞에 필적하는 음악판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는 여지없이 실패했다. 결국 패배를 선언한 우리, 그 무렵 갓 데뷔한 ‘장기하와 얼굴들’과 함께 홍대 앞으로 향했다. 어찌 보면 드디어 동경하는 땅을 밟게 된 셈이었다. 몇쟁이들이 우글거리는 최첨단 유행의 한복판에서 ‘추리닝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거주민의 포스를 과시할 생각으로 들뜨기도 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홍대 앞은 달라져 있었다. 한일 월드컵 이후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상업화, 혹은 ‘강남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바람에 집세는 오르고 괜찮은 클럽과 술집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련되고 값비싼 인테리어의 체인점 비슷한 가게들, 도무지 재미없어 보이는 그렁고 그렁 가게들이 대체하고 있었다. 2호선 홍대입구역과 홍익대 정문을 중심으로 펼쳐진 ‘홍대 앞’에서 빠져나간 재미있는 가게들이 향한 곳은 6호선 상수역과 합정역 근처였고, 그래서 ‘홍대 옆’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물론 홍대 앞에는 여전히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활력이 자리하긴 했지만, 더 이상 내가 원하던 동경의 땅은 아니었다.

홍대 앞에서 ‘홍대 건너편’으로

그렇게 정을 붙이지 못한 채 1년을 지낸 후, 우리는 다시 거점을 옮기게 되었다. 상업적인 홍대 앞이 지긋지긋해졌다고보다는 밴드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좀 더 넉넉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로 홍대 근처에서 공연을 하는 밴드들이 머물 수



하지만 진정한 신천지의 발견,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간 유럽의 선교사가 이 과수 폭포를 처음 마주했을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합주실 정리를 마치 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렀을 때였다. 그냥 보통의 기사식당이라 생각하고 이런저런 메뉴를 시켰는데, 웬걸, 서울에서 보기 힘든 어귀굴젓이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었다. 웬지 느낌이 괜찮다 싶었는데 막 나온 두부찌개를 한 숟가락 떠 먹은 순간, 나는 소주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돼지고기와 두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국물은 도저히 술 없이는 못 배기는 그런 구수함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돼지고기 숯불구이에 황태찜과 오징어볶음... 모든 메뉴가 각자 확고한 맛의 영역을 지니고 있었다. 감동으로 목이 메인 나는 이후 합주실에 들릴 때마다 이곳을 마치 구내식당처럼 찾게 되었다. 낯술을 부르는 두부찌개로 인해 사업상의 미팅이 순식간에 술자리로 변하는 불상사도 몇 차례 있었지만 말이다. 이곳이 바로 내가 연남동에서 가장 사랑하는 식당인 '감나무골 기사식당'이다.

물론 이 식당만 있었다면 연남동을 신천지라고까지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나무골 기사식당에 필적하는 기사식당이 여럿 포진한 '기사식당 거리'를 지나면 이 변에는 그 외관만으로도 '여긴 전통의 맛집이오'라고 선언하는 듯한 중국요리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차이나타운'이 나온다. 과장이 아니라 한국의 중국요리집을 다룬 만화, 〈차이니스 봉봉 클럽〉에 소개된 가게들 중 태반이 이곳에 있을 정도다. 이곳에 있는 어느 집이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중국으로 이동했나 싶은 착각이 든다. 종업원의 대다수가 중국어를 하다 보니 '아, 여기선 중국어로 주문해야 하나?'라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다들 한국어를 잘하기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게 짬뽕이나 대만식 돈가스처럼 다른 데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식사'부터 들도 보도 못한 이름의 '요리'가 즐비하다. 나는 그중에서도 '구가원'의 소고기 오향장육과 '향미'의 양배추를 넣은 돼지족발 찜개를 가장 좋아한다. 아마 중국음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이곳에 들러 하나씩 호오를 판단하기만 해도 일년은 금세 지나가버릴 것이다. 기사식당 골목과 아주 작은 차이나타운이 중첩되어 형성된 맛의 고장, 이곳이 바로 연남동이다.

연남동의 미덕이여, 영원하라

있는 집세 싼 곳을 찾아 향했던 곳이 홍대입구역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자리한 연남동이었다. 큰 길 하나 건넌을 뿐인데, 그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홍대 앞에서는 맡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단독주택들과 2~3층짜리 빌라들이 늘어선 골목 사이사이에 슈퍼와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 연남동은 돈을 주고받으며 노는 곳인 홍대 앞과는 다른, 사람이 사는 동네였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 붕가붕가레코드를 시작했던 봉천동의 썩고개를 떠올렸다. 합주실에 갈 때면 작은 구멍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은 시장통을 지나야만 했던 썩고개에서 태어나 그저 아주 조금 더 자랐을 뿐인 우리들에게 알맞은 곳은 홍대 한복판보다는 바로 이곳 연남동이었다.

이제 홍대 옆도 포화상태에 이른 것인지, 연남동에도 점차 '홍대스러운' 아기가자하고 예쁜 카페들, 재미있게 꾸며진 술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몇 년 지나면 홍대 앞과 홍대 옆에 이어 '홍대 건너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나로서는 이중적인 느낌이 들게 만드는 변화다. 이런저런 곳들이 생기면 놀 수 있는 곳도 많아지니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즐겨 찾던 허름한 식당이 사라지고 그곳에 세련된 카페가 들어서는 걸 보는 일이 슬프기도 하다. 이러다가 돈 있는 이들에 의해 오랜 시간과 전통을 지닌 맛의 고장, 사람 냄새 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물론 나 역시 뜨내기로, 이곳에 발 붙이고 사는 입장이 아니기에 이런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도 권리도 없다. 그저 연남동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홍대스러운 새로운 것들이 공존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싶다. 홍대 건너편에 있는, 사람 냄새 나는 맛의 고장이 지닌 가치를.

생활 속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2012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방향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예술지원사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012년이면 40주년을 맞아 사람으로 치면 불혹의 나이가 되는 셈이다. 이 글에서는 문예진흥원 시절을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예술지원제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2009년의 지역협력형사업의 도입과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2012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www.ssc.or.kr



2012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설명회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장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정부산하기관인 문예진흥원을 민간자율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2003년 7월에 문화행정혁신위에서 문예진흥법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고, 이어 2004년 12월에 제17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가 출범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중반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는 문화비전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에 기초한 예술지원 정책을 펼쳤다. 창의한국의 핵심키워드인 ‘창의성’, ‘다양성’, ‘역동성’에 근거하고 새 예술정책의 중심인 기초예술진흥, 지원정책의 현장중심 전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 참여 대 폭 확대 등의 변화를 꾀한 것이다.

문예위는 정부 임명 원장 독임제의 폐해, 기존 예술장르의 해체, 장르 간 융·복합 등 다변화된 예술환경, 관주도의 지원 정책 등의 관행으로 현장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문화예술인들의 지원금 의존성 심화 등 산적한 예술지원제도의 현안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게 된다.

형평성 원칙에 따른 소액다건형 지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연례사업과 행사 위주의 단발성 지원은 다년간 지원제도로, 예술작품 창작 위주의 지원은 창작, 유통, 소비 등 예술현장 중심으로 바뀐다. 탈장르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고, 중앙정부 집행 위주의 일방적인 직접지원방식은 지역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역 분권식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2008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 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 4대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선택과 집중’ 지원은 소액다건식 나눠주기 지원으로는 예술가(단체)의 공공재원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생력을 잃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사후지원’은 서류만으로 예술적 성과와 기대치를 가늠할 수 없어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창조적이고 우수한 예술작품을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취지였고, ‘간접지원’은 예술가가 창작

거점인 공연장과 미술관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도 활성화하고 예술가의 재정적 부담도 줄여주기 위한 취지였다.

끝으로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정책은 위의 세 가지 지원 원칙 하에 만들어진 우수한 예술작품들이 국민의 생활 속에 함께하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009년에는 4대 지원 전략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었고, 문예위가 1999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역배분형사업(2개 사업)을 확대하여 총 438억 규모의 지역협력형사업(5개 사업)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와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을 거치며 지역협력형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급감하게 되고 2012년에는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이 대폭 강화되어 전체 지역협력형사업 총 예산 179억 원의 44.6%인 80억 원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예위 출범 이후 예술지원사업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2008년 정권교체와 함께 찾아 온 경제위기, 현 정부의 정책방향, 현장 수요 등의 다변화가 예술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의 핵심 주체인 문예위가 애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민간전문가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는가, 독립성과 자율성의 바탕 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각계의 인식이 공유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문화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2012년이면 4년째를 맞는 지역협력형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과 지원의 편중성에 대한 다른 지역의 문제제기 등과 맞물려 서울지역 국고배분액이 급감함으로써,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지원사업 전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더욱이 서울시 재정악화에 따른 지원예산의 불확실성, 새로운 시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정착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협력형사업 연도별 예산 증감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분	지원금액	백만원	배분율	구분	지원금액	백만원	배분율	구분	지원금액	백만원	배분율	구분	지원금액	백만원	배분율
서울	7,030		38.4%	서울	4,749		24.6%	서울	2,589		15.7%	서울	2,928		16.4%
전국	18,300		100%	전국	19,300		100%	전국	16,491		100%	전국	17,800		100%



예술지원사업 PT심사 모습



2012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설명회

2009년 이후 지역협력형사업 매칭액에 따른 전체 지원 예산 규모의 급감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지원사업 수행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서울문화재단 전체 지원사업의 틀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서울지역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서울지역의 예술인 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64%인 약 27만여 명이고 우리나라 문예활동의 48.5%인 연간 1만 여 건 이상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금수요 측면을 판단하는 인구수는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경인지역을 포함하여 50%에 이른다.

지역균형발전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지역의 문화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지역협력형사업이 거듭될수록 감소하는 매칭 배분액과 이에 따른 전체 지원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이면서 동시에 중앙 수도 입장에 걸맞은 사업의 차별성 획득,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창립 이후 지역의 문화 생태계 조

성 및 발전을 위해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서울시민 모두가 예술에 참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우수한 예술 콘텐츠를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시민이 예술 향유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예술에 참여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예술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2012년 예술지원 방향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2년 예술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현장중심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10여 회), SNS와 설문조사(3회) 등을 실시하여 지원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울 창작지원금 증액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 국고의 서울지역 지원액이 전년 대비 약 3억 3천만 원 증액되었다.

경기악화에 따라 예술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기초예술 전반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예산확보에 집중했다. 그 결과 예술창작활성화에 57억, 공연장상주 예술단체육성지원에 27억 원 등을 확보하고 약 120억 원을 예술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육성된 작품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사업 전략방향 및 추진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서울형 예술지원 전략수립

(2009~2010)
Systematization

- 서울형 예술지원 개념 정립
- 운영시스템 개편 및 전산화
- 서울형 창작지원 인프라 구축



우수 예술 콘텐츠 인큐베이팅

(2010~2013)
Creativity · Excellence

- 창의적이고 우수한 콘텐츠 집중지원
- 작품 및 신진예술가 발굴 및 육성
- 평가 및 인증을 통한 지원 강화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커뮤니티 형성

(2013~2015)
Cultural community

- 자치구·상주단체 협력을 통한 우수 콘텐츠 확산
- 우리동네 예술가 및 동호회 육성
- 문화니움·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

첫째, 우수 예술 콘텐츠 발굴을 위해 창의적인 예술실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유망예술가육성지원(NaArT) 등을 통해 시대를 앞서가는 각 장르별 우수 예술가를 발굴하여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금을 통한 직접지원과 창작공간 등의 간접지원, 그리고 작품을 유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작여건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둘째, 기초예술의 다양성과 예술생태계 보존을 위해 소액 다건방식의 기초는 유지하되,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선택·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를 통해 선별된 우수예술작품은 지원금 증액 및 연속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육성지원 방식은 2012년 서울예술축제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가육성지원(NaArT) 등의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예술창작지원 전 분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동안 시각창작지원 분야에 국한하였던 국제교류지원을 공연(다원) 전 분야로 확대하여 우수작품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장할 예정이다.

셋째, 시민문화활동지원의 경우 시민의 예술 참여확대 및 문화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생활 속 예술지원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생활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시민 동호회활동 및 아마추어 예술가 모임과 시민축제를 지원하고, 기존 공연장상주예술단체를 자치구 문화공간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전문가(예술단체, 예술가), 시민들이 함께하는 생활문화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 목표이다.

현재 서울문화재단은 '지역협력 예술지원정책에 대응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설정'이라는 과제를 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연구의 성과는 201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합리적 지원프로그램 개발, 예술계 자생력 확보, 심사제도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예술가(단체)들이 치열한 예술혼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예술의 '맛'과 '멋'을 만끽하며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글. 김필국 극단아리랑에서 배우 및 기획자로 활동했다.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국립극장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 2012년 수도권 예술지원사업 주요 특징

내용	기관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비전		●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현장의 동반자	● 우수예술작품을 서울시민의 생활 속으로	● 문화예술의 창조적 에너지 확산	● 창작 및 생활예술, 문화향유 활성화
사후지원		● 책임심의위원회제도 통해 사후적 평가에 의한 지원체계 확립	● 〈서울예술축제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육성지원〉 평가 통해 연속지원 및 지원금 증액 → 추후 예술창작지원 전분야로 확대 예정	없음	● 지원금 1,000만 원 이상 사업 (교부시 70% +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30% 사후지원) ● 예술표현활동지원 출판분야, 시각/전통분야 개인전 전액 사후지원
사업구조 개편		● 기존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하던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지원〉을 분리	● 〈서울 속 문학자원 보존활동 지원〉, 〈예술평론활성화지원〉을 기존〈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으로 흡수 통합 ● 〈문화공간 활성화지원〉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통합	●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은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지원〉으로, 〈우수예술프로젝트〉 지원은 〈유망작가예술프로젝트지원〉으로 전환	●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과 〈문화예술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사업〉 통합 -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 신청 ● 〈시민문화활동지원〉, 〈문화예술역량 강화지원〉 공모, 기획지원사업 병행
국제교류 확대		● 국제교류 중기지원사업 : 2014년 본 사업 준비까지 단계적 지원	● 기존 시각창작지원 → 공연 전분야로 확대	지원 분야 없음	● 기획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공모/ 기획지원 분리(담당사업팀 이관 공모 지원: 예술지원팀, 기획지원: 기획사업팀)
우수작품 집중지원		●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지원액 확대 기존 연극 8,000만 원 → 1억 원	●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분야 지원액 확대 기존 3,000만 원 → 5,000만 원	● 유망작가 예술프로젝트지원 분야 지원액 확대 기존 개인 1,000만 원 → 2,000만 원 기존 단체 3,000만 원 → 5,000만 원	● 시각예술/출판분야(개인) 지원액 확대 기존 최대 500만 원/300만 원 → 최대 700만 원/500만 원
신규사업		● 국제교류 중기지원사업 - 2012년도 준비단계의 사업을 지원	● 유망예술육성지원(NaArT) 세부분야 신설 - 작품 사전제작 단계지원 신설(연극분야 시범사업)	● 지역 문화자원 특화를 위해 〈전문예술 창작·발표 지원〉과 〈전문예술 연구·출판 지원〉 신설	● 인천문화예술관람지원 신설 - 문화예술분야별/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관람

사랑 사랑 내 인생의 청춘아

어르신들이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고령화 사회를 넘어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60세도 되지 않아 은퇴한 이후에 30~40년을 더 활동해야 하는 시대다. 경제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더 즐거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게 '초년 노인'에게는 필수코스가 되었다.

경제력, 건강, 취미, 이웃과 친구 등 노년에 필수적인 요소를 챙기려면 어디에 거주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마다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이왕이면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곳이라야 훨씬 알차게 배울 수 있기 때문. 물론 시내 구석 구석 지하철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다소 멀더라도 큰 불편은 없는 편이다.

이 예술대학은 뮤지컬, 만담, 연희극, 영화제작, 미술, 마술, 인형극 등 다양한 종류의 예술 분야를 익히도록 도와준다. 단순하게 기능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등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 무대에서 재능을 펼쳐 보이는 게 특징이다. 매년 한 번씩은 근사한 정식 무대에 올라 저마다 배운 기량을 뽐내기도 한다. 11월 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치매 노인을 위한 뮤지컬 봉사단의 무대가 펼쳐졌다.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 우리집에 있는 거요?" -할아버지 배우

"젊을 때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제는 치매에 걸려 날 괴롭히는구먼"

-할머니 배우

"이 사람들아, 왜 여기서 싸우냐고, 당장 나가!" -치매 관객

1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1층 치매 노인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에서 실버공연단원 16명이 치매 부부를 소재로 한 뮤지컬을 선보였다. 관객인 치매 노인 30여 명은 간간히 박수를 보내다가도 공연에 너무 몰입했는지 부부싸움 장면을 보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물론 취재기자를 향해서도 "왜 뒷문으로 들어오느냐"는 호통이 나왔다. 하지만 실버공연단 배우들은 이런 어수선했음 속에서도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우리 할머니는 명배우

실버공연단은 <사랑 사랑 내 인생의 사랑아>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2011년 4월부터 연습해 이날 두 번째로 공연에 나섰다. 부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 모든 단원이 나와 흥겨운 음

악에 맞춰 같은 동작의 춤을 췄다. 음악이 끝나면 재빨리 배역을 맡은 단원이 등장해 연기에 몰입했다. 번듯한 조명이나 멋진 배경음악이 나오는 공식 무대도 아니고 치매 노인이 모인 복지관 강당에서였지만 이들이 쏟아낸 열정은 번듯한 무대에서나 이곳에서나 똑같아 보였다.

이런 공연을 위해 단원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두 시간씩 연습한다. 화려하진 않지만 공연에 쓸 의상과 음악도 마련했다. 공연단에서 '애들'로 분류되는 박영란 씨는 이날 감기몸살로 노래 중간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지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곡을 마무리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출연진이 모두 나와 그룹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전문 뮤지컬 배우 못지않았다.

여주인공을 맡은 전직교사 이경자 씨는 "젊을 때는 꿈만 꾸었고 시도도 못해보다가 이제 무대에 서보니 다시 사는 느낌이 든다"며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가 배우라고 자랑할 때는 얼굴이 상기될 만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강병화 씨는 "시립 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이 있는 것처럼 고령화 시대에 맞춰 취미 노인 단원으로 편성한 전문 노인공연단을 만들 때가 됐다"며 "나도 조금만 더 익히면 전문 배우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씨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같이 주장하자 옆에 있던 동료들은 너나없이 "국악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는데 실버극단





2011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수료식

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맛장구를 쳤다.

할머니들 틈에서 눈에 띄는 유일한 남성 이기해 씨는 전직 프로듀서다. 이 씨는 “이제는 몸놀림도 어설피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열정은 예전보다 더 크다”며 “외형적인 실력이야 줄었겠지만 열정이 담긴 연기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유민자 씨는 “노인이라 가장 쉽고 기초적인 것만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몸이 조금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고, 자꾸 연습하면 몸도 상당부분 고난도 기술을 익혀낸다”고 말했다. 그는 “실버는 못한다는 선입견을 이제는 버려주었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것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이의 무게, 열정의 크기

이 공연단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2008년부터 진행 중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프로그램의 하나다. 시내 각 구청별로 노인들이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배워 무대에 오르거나 봉사활동에 나서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8년 18개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27개로 늘었다. 인형극, 연극, 동화구연, 춤, 미술, 영상, 잡지발행 등 분야도 다양하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교육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전문 강사들이 노인을 지도하게 한다. 이렇게 특정 분야의 문화적 재능을 익힌 노인들은 주로 노인들을 찾

아가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인다. 문화를 매개로 노인들이 다른 처지의 노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소통의 매개체로서 자연스레 지역 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단원 중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남은 단원들이 한동안 충격에 빠져 연습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몸이 아파 빠지는 단원이 생겨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실버공연단을 지도한 문화교육단체 ‘소풍’의 황윤미 씨는 “중종 문제가 생기지만 단원 모두의 열정이 해결해준다”며 “기본 이상을 익힌 단원들은 고난도 동작을 가르쳐달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시의 지원이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라며 웃음을 짓더니 “주어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원 폭이 커지면 노인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멋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1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노인들은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뮤지컬을 공연했던 실버공연단을 비

동네 경로당에서 흘러간 대중가요를 흥겹게 부르는 문화와 예술의전당처럼
고품격 예술을 추구하는 무대에 선 실버공연단의 모습이 어우러져야 서울 노인 모두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롯데 참여했던 27개 팀이 모두 모여 그동안 익힌 기량을 제대로 된 무대에 올렸다. 노인들은 학창시절 졸업식이 떠오르는 듯 가족과 기념사진을 찍고 동료들과도 한 장의 추억을 담아 내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보는 것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발전한 노인 문화가 이제는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세대간 소통의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년이 흥겨운 날들을 위하여

사회가 다양화되면 서울시나 정부를 향해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기 마련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요구할 때 개인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인도 예외가 아니다. 열정이 있고 하고 싶은 예술 분야가 있는 노인들이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에 주로 참여한다.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노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프로그램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올바른 커뮤니티 형성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노인 말고도 숨어 있는 잠재적 수강생을 발굴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학력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예술대학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노인의 문화생활을 커뮤니티로 연결하는 시도는 전국의 229개 지방문화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술대학과 약간 다른 형태지만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문화를 매개로 노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이런 노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효과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뮤지컬과 미술, 동화구연이 대세라고는 해도 이런 문화에 익숙지 않고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아



2011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발표회



2011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발표회

는 것은 흘러간 대중가요이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화투나 바둑뿐인 노인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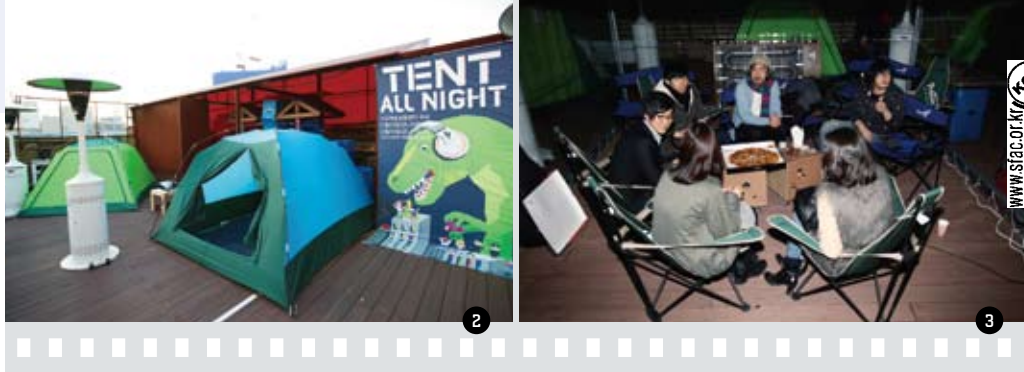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가 활성화돼 노인들도 이런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예술대학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노인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고급, 고난도 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는 것과 함께 ‘평범하고 서민적인 예술’도 노인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네 경로당에서 흘러간 대중가요를 흥겹게 부르는 문화와 예술의전당처럼 고품격 예술을 추구하는 무대에 선 실버공연단의 모습이 어우러져야 서울 노인 모두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노년이 흥겨운 서울의 미래가 그려지는 듯하다.

우리 동네 마을극장만세

색깔 있는 영화 관람법





1·2·3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운영하는 옥상극장의
송년 아트 패키지 프로그램 '텐트 올나잇'.



● 지금은 멀티플렉스의 시대다. 아니, 멀티플렉스의 시대가 된 지 제법 시간이 지났다. 대형마트처럼 동네마다 영화관이 있어 언제라도 쉽게 극장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영화관에 대한 접근성은 가까워졌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신영화와 대기업이 배급한 영화에 한해서다. 독립영화나 규모가 작은 외화 경우, 출근시간대나 심야시간대에 배치되어 쉽게 볼 수 없거나 가까운 동네 멀티플렉스에는 걸려 있지 않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큰마음을 먹고 멀리까지 가거나 '언제 꼭 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극장에서 내려 나중엔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서울아트시네마나 씨네큐브, CGV 무비콜라주 같은 예술영화 상설관이 있던 극장에서 내리면 이마저도 볼 수 없게 된다. 극장에서 내린 독립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를 가까운 동네에서 다시 볼 수 없을까. 지금부터 소개하는 몇몇 극장이라면 당신의 물음에 적당한 대답일지도 모르겠다. 문래예술공장의 '문래동네, 씨네문',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운영하는 '브런치 시네마'와 '시네마 카페', 서교예술실험센터의 '텐트 올나잇', 성미산마을이 운영하는 마을극장, 삼성의 '딜라이트 시네마'가 그것들이다.

영화관에서만 영화 보니?

'문래동네, 씨네문'은 2008년부터 시작된 '문래3가 독립영화 정기상영회'에서 비롯된 프로그램으로, '상업영화관에서 외면 받는 작가주의 영화를 정기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시, 미술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발굴, 활용하는 문래예술공장은 문래창작촌의 잠재력 있는 문화자원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획한 'MEET(Mullae! Emerging & Energetic)'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문래동네, 씨네문'도 MEET 프로그램 중 하나다.

매월 2회 독립영화를 상영하는데, 한 번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예술가 작업실에서, 또 한 번은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에서 상영한다.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영화 관람을 원하면 문래예술공장에서, 작업실 탐방과 영

화 관람을 겸하는 이색 체험을 원하면 예술가 작업실에서 영화를 감상하면 된다. 상영이 끝난 뒤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를 보면서 든 궁금증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이웃예술가와 함께 영화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농민가> <혜화, 동> <시선 너머> <하얀 정글> <축구의 신 마라도나> <소중한 날의 꿈> <당신 없는 그곳> <종로의 기적> <쿠바의 연인> <꿈의 공장> 등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그간 상영했던 작품을 보면 제법 알찬 독립영화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영화 상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 상영이 끝나면 같은 기간에 열리는 다양한 예술프로그램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가령 12월 23일 저녁 7시 문래예술공장에서 상영하는 실뱅 쇼메 감독의 애니메이션 <일루서니스트>를 보기 전, 정다방에서 열리고 있는 '아트스타트 어린이 미술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영화와 전시를 감상하는 것만큼 좋은 나들이도 없을 것이다.

옥상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관도 있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하는 거 아니냐고? 한겨울에 옥상에서 영화 보다가 감기 걸리는 거 아니냐고? 일단 걱정 불들어 매시라.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운영하는 옥상극장은 송년 아트 패키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텐트 올나잇'을 마련했었다. 텐트 올나잇은 11월 25~26일, 12월 16~17일 총 나흘 간 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에서 진행한 영화제인데,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동틀 때까지 5개 텐트 상영관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 및 미디어 영상 총 177편을 릴레이 상영했다. 취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도록 섹션을 구분했다. 1관은 독립예술 '장편' 영화관으로, 지난해 벅쿠버국제영화제에서 용호상을 수상한, 배우 서준영의 짜질한 연기가 인상적인 장진재 감독의 <회오리 바람>,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영화화한 임우성 감독의 <채식주의자>,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인 뉴키러츠 부문 공동대상을 수상한 박정범 감독의 <무산일기>, 남다정 감독의 밴드 메이트 이야기인 <플레이>, 윤성호 감독의 인디시트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가 이 섹션에 포함되어 있다.



1·2 성북예술창작센터의 '브런치 시네마'. © 백중현
3·4 문래예술공장의 '문래동네, 씨네문'.
5 성미산마을이 운영하는 '성미산마을극장'. © 성미산마을극장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작은 상영관의 움직임을 보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독립영화를 비롯한 작은 공연들이 가까워진 느낌이다.



2관 미디어폴라리주 관에서는 한국, 일본, 독일, 핀란드, 불가리아 등 전 세계의 미디어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실험 애니메이션 감독인 마야 요네쇼의 〈Believe in it〉을 비롯한 6개의 작품, 박병래 작가의 싱글채널 비디오 〈엘라스틱 코드 플레잉〉 등의 작품을 100여분 동안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3관인 독립예술 '단편' 영화관에는 배우 류현경이 각본, 연출, 제작, 주연을 맡은 〈날강도〉를 비롯해,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에서 상영된 장재현 감독의 〈버스〉, 2012년 선댄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오른 정영삼 감독의 〈하프라인〉 등 총 30여 편의 단편영화가 포진되었다. 4관과 5관은 시민이 직접 만든 영상물을 상영했는데, 4관에서는 '텐트 올라잇' 시민 공모로 구성된 '꾸러기 스튜디오'가 만든 작품들을, 5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 전공 학생들의 작품 30여 편과 홍익대 영상영화과 학생 및 일반 고등학생들의 작품을 상영했다. 상영이 끝난 뒤 옥상에 마련된 모닥불 앞에서 감독, 배우, 관객이 함께하는 시네마 토크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카스테라' '복숭아 나무' '이성우 밴드' '오롯' 등 여러 흥대 인디밴드의 공연이 준비되어 눈과 귀가 즐거운 영화제였다.

커뮤니티 씨어터, 그러니까 마을극장

브런치를 먹으러 홍대 앞으로 갈지, 이태원으로 갈지 고민하는 성북동 주부들은 앞으로 브런치 하면 성북동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브런치 시네마'와 '시네마 카페'를 운영한다. '브런치 시네마'는 단순히 영화 상영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오전 시간대에 성북예술창작센터를 방문하면 센터를 함께 둘러보고, 어떤 공간인지 설명을 듣고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면서 '브런치 시네마' 일정이 마무리된다. 매회 15~20명의 주부들이 방문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한다.

'시네마 카페' 역시 '브런치 시네마'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성북예술창작센터 1층 성북예술다방과 2층 음악실인 공감을 활용한 점이 차이라면 차이이다. 12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함께 차를 마시며 예술공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12월 상영 영화는 〈씨니〉(7일)를 비롯해 〈프라이미 러브〉(14일), 〈줄리 앤 줄리아〉(21일), 〈커플 테라피〉(28일) 등 총 네 편이다. 아이와 남편을 학교와 직장에 보낸 뒤 오전 시간대를 문화생활로 꾸리는 것만큼 일상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개의 극장 같은 '커뮤니티 씨어터', 그러니까 마을극장이 처음 시도된 곳이 있다. 마포구 성미산마을에 있는 성미산마을극장이 그것이다. 동네 골목길에 위치한 60여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이 마을극장은 평소로는 그렇게 큰 규모



는 아니지만 극장 천장 높이가 6m로, 시원한 공간을 자랑한다. 한 번에 100명 정도가 관람할 수 있다고 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성미산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연극, 마인,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월 1일 열린 ‘연말정산영화관’에서 총 5편의 영화가 상영됐고, 연말에는 푸치니 오페라 중 한 작품인 〈외투〉가 무대에 오른다. 공동체의 예술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마포구 주민뿐 아니라 공동체 문화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들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청계천문화관에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특정 테마와 관련된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 사랑을 주제로 한 12월에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1일), 〈말할 수 없는 비밀〉(8일)을 비롯해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만날 확률〉(8일)을 상영했다. 영화뿐 아니라 전시, 뮤지컬, 오페라 등 다른 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밖에도 기업체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극장도 있다. 삼성은 ‘딜라이트 시네마’라는 커뮤니티 극장을 통해 11, 12월 두 달 동안 ‘2011 한국독립영화특별전’을 마련했다. ‘딜라이트 시네마’가 열리는 곳이 강남역 삼성 건물

이라 직장일 때문에 평소 독립영화를 접하기 어려웠던 주변 직장인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작은 상영관의 움직임을 보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독립영화를 비롯한 작은 공연들이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가까운 작은 상영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스산한 겨울이 보다 따뜻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문래동네, 씨네문 문래창작촌 커뮤니티 www.blogmoon.co.kr
서울시창작공간 www.seoulartspace.or.kr

텐트 올라잇 서교예술실험센터 <http://cafe.naver.com/seoulartspace>

브런치 시네마 & 시네마 카페 성북예술창작센터 <http://cafe.naver.com/sbartspace>
02-943-9300 (온라인 카페나 전화로 접수)

서울시창작공간 www.seoulartspace.or.kr

성미산 마을극장 <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

청계천문화관 <http://www.cgcm.go.kr>



〈풍찬노숙〉

Show Must Go On!

2012년 씨어터고어를 흥분시킬 공연 리스트

연초가 되면 각 공연장과 공연기획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해의 라인업을 미리 살펴보고 새 다이어리에 표시해놓는 씨어터고어들이 많을 것이다. 2012년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제목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작품도 상당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공연의 성패를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준비했다. 2012년의 기대되는 작품과 주요 공연 리스트.

연극

기대되는 신작 vs 놓쳤던 작품

2012년 연극계는 거장들의 초연 작품과 다시 보고 싶은 작품으로 풍성하다. 특히 매년 신선하고 독특한 기획 공연으로 관객들의 오감을 충족시켜온 LG아트센터의 라인업이 가장 눈에 띈다. 연극계의 살아 있는 신화 피터 브룩이 모든 형식과 관습을 걷어내고 모차르트 음악의 본질과 완전한 자유만을 가지고 만든 오페라 〈마술피리〉, 온 가족을 위한 동화인 뉴질랜드 레드립 극장의 〈도착〉, 찰리 채플린의 딸 빅토리아 채플린이 연출하고 그의 손녀인 오렐리아 피에리가 주연을 맡은 아름다운 마임극 〈속삭이는 벽〉 등은 놓칠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런가 하면 명동예술극장에서는 ‘현대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헨리크 입센의 대표작으로 사회와 싸우는 이상적인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헤다 가블러〉와 2011년 영화 〈그을린 사랑(Incendies)〉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레바논 태생 캐나다국립예술센터 예술감독 와이디 무아와드의 〈그을린 사랑(Incendies)〉이 초연된다.

남산예술센터에서는 지난 여름 낭독공연부터 기대를 모았던 김지훈 작가의 신작 〈풍찬노숙〉이 2012년 첫 작품으로 오르고, ‘연극열전4’에서는 데이비드 헨리 황의 〈M. Butterfly〉와 헤롤드 핀터의 〈The Lover〉를 각각 김광보 연출과 박근형 연출의 무대로 만날 수 있다.

한편, 다시 보고 싶은 작품으로 항상 언급되는,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들도 상당수 무대에 오른다. LG아트센터에서는 2011년 전석매진 신화와 함께 큰 사랑을 받았던 이자람의 새로운 판소리 〈억척가〉와 2009년 초연되어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양정웅 연출의 〈페르귄트〉의 앙코르 공연이 준비된다. 두산아트센터에서는 〈목란언니〉를 비롯해 지난 2007년 최고의 연극으로 꼽혔던 마틴 맥도너의 잔혹동화 〈필로우맨〉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앙코르 공연 가운데는 명동예술극장의 상반기 작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데 2010년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돈키호테〉와 피터 웨퍼의 명작인 〈고곤의 선물〉, 2009년 서울연극계를 휩쓸었던 〈봄날〉이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도착〉

공연명	일시	장소
〈돈키호테〉	1/7~1/22	명동예술극장
〈풍찬노숙〉	1/18~2/12	남산예술센터
〈고곤의 선물〉	2/23~3/11	명동예술극장
〈목란언니〉	3/9~4/7	두산아트센터
〈마술피리〉	3/15~3/17	LG아트센터
〈봄날〉	3/16~4/1	명동예술극장
〈M. Butterfly〉	4/24~5/31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헤다 가블러〉	5/2~5/28	명동예술극장
〈도착〉	5/3~5/6	LG아트센터
〈억척가〉	5/11~13, 5/16~17	LG아트센터
〈그을린 사랑(Incendies)〉	6/5~6/24	명동예술극장
〈The Lover〉	6/27~8/13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필로우맨〉	8/11~9/15	두산아트센터
〈속삭이는 벽〉	10/18~10/21	LG아트센터
〈페르귄트〉	10/11~10/14	LG아트센터
〈소설가 구보씨의 1일〉	11/27~12/30	두산아트센터

뮤지컬

국내 초연 라이선스 vs 호평 받은 창작뮤지컬

공연명	일시	장소
〈닥터 지바고〉	1/27~6/3	샤롯데씨어터
〈광화문 연가〉	2/6~3/11	LG아트센터
〈엘리자벳〉	2/9~5/13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모비딕〉	3/20~4/29	두산아트센터
〈캐치 미 이프 유 캔〉	3/29~6/10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모차르트 오페라 락〉	3/30~4/29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식구를 찾아서〉	4/19~6/17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
〈파라다이스〉	5/15~6/3	충무아트홀 대극장
〈헤어스프레이〉	6/5~8/6	충무아트홀 대극장
〈위키드〉	5/24~10/7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콩칠팔새삼록〉	6/19~7/29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
〈모차르트〉	7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라카지오폴〉	7/2~9/4	LG아트센터
〈미남이시네요〉	7/31~9/11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셜록홈즈 두 번째 이야기-잭더리퍼〉	9/11~11/11	두산아트센터
〈루돌프〉	10/22~2013/1/13	충무아트홀 대극장
〈레 미제라블〉	11월	미정

뮤지컬 팬이라면 2012년에는 지갑이 얇아질 각오가 필요하다. 국내에 초연되는 대형라이선스 뮤지컬과 2011년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창작뮤지컬이 봇물처럼 쏟아지니 말이다. 그 시작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뮤지컬 프로듀서가 함께 만든 3개국 합작 대형 뮤지컬 〈닥터 지바고〉.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원작소설과 오마 샤리프 주연의 영화로 유명한 이 작품은 주인공으로 낙점된 홍광호와 주지훈의 복귀작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마니아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레전드로 꼽혀온 〈엘리자벳〉이 드디어 국내 무대에 오른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벳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초월한 캐릭터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비엔나에서 초연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유럽, 일본 등지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엘리자벳〉이 유럽 뮤지컬의 레전드라면 〈위키드〉는 브로드웨이의 레전드다. 웬만한 라이선스 뮤지컬은 죄다 공연이 되었다고 할 만큼 뮤지컬 시장이 커졌지만 〈위키드〉만큼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했기에 투어팀의 내한공연만 오매불망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이다. 또한 '게이 커플과 그들의 아들 결혼 성사를 위한 대작전'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토니상 작품상을 세 차례나 수상한 뮤지컬 〈라카지오폴〉도 기대되는 작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꾸준한 작품 개발 과정을 거치며 완성도와 작품성을 탄탄하게 굳힌 창작뮤지컬이 기다리고 있다. 두산아트센터 쇼케이스 공연을 거쳐 본 공연에서는 전석 매진에 이른 국내 최초의 액터-뮤지션 뮤지컬 〈모비딕〉, 2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11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서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한 후 충무아트홀에서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갔던 〈식구를 찾아서〉가 그 주인공. 지난 공연을 놓쳤거나 다시 보고 싶은 관객들은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창작팩토리 오픈리허설 등에서 호평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 중인 〈콩칠팔새삼록〉이 정식 공연되고, 2011 한국뮤지컬대상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하며 돌풍을 일으킨 수작 〈셜록홈즈〉가 그 두 번째 시리즈인 '잭더리퍼'로 찾아온다.



〈위키드〉



〈닥터 지바고〉



바이올리니스트 한빈



우테 램퍼



앙상블 디토

음악

결 작 시 리 즈 v s 새 로 운 도 전

2012년에 가장 기대되는 음악 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준비한 패키지 공연이다. 2012년 프로그램의 중심인 '러시아 시리즈'는 3개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을 비롯한 러시아 걸작들을 연주하는 시리즈로 겐나지 로제스트벤스키, 마크 엘더 등이 지휘봉을 잡으며 클래식계의 '섭외 1순위'인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와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뮈송 등의 협연이 클래식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교향악단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모차르트, 바그너, 말러 등의 가곡, 아리아, 종교음악, 오페라 등을 선보이는 '보컬 시리즈'에서는 서울시향의 연주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스타 연주자가 기용되는 '비르투오소 시리즈'에서는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와 첼리스트 다니엘 뮐러 쇼트 등을 만날 수 있다. '마스터피스 시리즈'에서는 프로코피예프와 R.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들을 수 있고, 진은숙 상임작곡가의 프로그래밍으로 만나는 '아르스 노바'에서는 '헝가리'를 주제로 첼리스트 양성원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협연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무엇보다 2012년에는 김선욱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로열 콘서트하바우 오케스트라와 정명훈이 만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5'에 협연자로 나설 뿐 아니라 LG아트센터에서는 총 4회에 걸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에 도전한다. 또한 데뷔 10주년을 맞은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리사이틀, 파격적인 외모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세계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빈의 리사이틀 등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외에도 프랑스 고음악 '르 콩세르 스피리튀엘'의 첫 연주회, 파가니니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가 이끄는 앙상블 크레메라타 발티카를 비롯해 독일 팝음악계의 슈퍼스타 우테 램퍼의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탱고〉와 포르투갈 음악의 대표주자 호드리고 레이웅의 공연 등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득하다.

공연명	일시	장소
서울시향 〈비르투오소 시리즈〉 (피아노: 아르카디 볼로도스)	1/1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시향 〈마스터피스 시리즈〉 (지휘: 레너드 슬래트킨)	2/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임동혁 리사이틀	2/18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5 〈로열 콘서트하바우&정명훈〉	2/21~2/22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시향 〈러시아 시리즈〉 (바이올린: 사샤 로제스트벤스키, 지휘: 겐나지 로제스트벤스키)	2/29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도전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	3월~11월(총 4회)	LG아트센터
한빈 리사이틀	4월 중	미정
서울시향 〈러시아 시리즈〉 (지휘: 마크 엘더)	6/8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탱고〉	6/10	LG아트센터
디토 페스티벌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시즌 6〉	6/22~7/8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이바벨 파우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 듀오	6/24	LG아트센터
서울시향 〈보컬 시리즈〉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 지휘: 카를로 리치)	7/1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시향 〈보컬 시리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8/24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호드리고 레이웅과 시네마 앙상블	10/6	LG아트센터
기돈 크레머&크레메라타 발티카 내한공연	10/16~10/17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시향 아르스 노바V 〈헝가리〉 (첼로: 양성원, 피아노: 김선욱)	11/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용

영국 현대무용 vs 네 가지 색깔 <백조의 호수>

2012년 무용계의 화두는 영국 현대무용과 <백조의 호수>가 되지 않을까. 매년 세계 현대무용계의 가장 핫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LG아트센터를 찾는 무용단체의 대부분이 영국 단체라는 사실. 영국 현대무용계의 다크호스로 힘 있는 무용, 재미있는 무용, 다이내믹한 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호페쉬 섹터 컴퍼니를 스타로 만든 두 작품을 시작으로, 일상과 예상을 벗어난 파격이 돋보이는 DV8 무용단의 신작 <Can We Talk About This?>, 85년간 영국 현대무용계 정상을 지켜온 램버트 댄스 컴퍼니의 14년 만의 내한 공연 등 기대작 모두가 영국을 본거지로 하고 있으니 영국 무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치 약속한 것처럼 2012년에는 클래식 발레 최고의 레퍼토리인 <백조의 호수>가 연달아 무대에 오른다. 노보시비르스크 발레단, 모스크바 시티 발레단에 이어 <백조의 호수>의 오리지널로 꼽히는 마린스키 발레단 등 각 단체의 매력이 두드러지는 백조들의 군무가 차례로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다. 발레 팬들에게는 세계적인 발레단의 고전 레퍼토리를 한데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이외에도 유니버설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국립발레단의 <스파르타쿠스>는 국내 양대 발레단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창단 5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발레단이 새롭게 준비한 창작프로젝트 <포이즈>는 한 국인 최초로 브누아 드 라 당스 안무가상을 한 안성수와 패션디자이너 정구호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발레리나 강수진은 자신의 대표작인 레퍼토리 <까멜리아 레이디>로 한국관객들을 찾는다.

글 김아형 월간 <씬플레이빌>의 수석기자로 7년 넘게 한 달의 절반을 공연장에서 퇴근하고 있다. 무엇을 봐야하나 고민인 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골라주는 데 보람을 느끼며 산다.

공연명	일시	장소
유니버설발레단 <디스 이즈 모던3>	2/18~2/19	유니버설아트센터
국립발레단 <자젤>	3/1~3/4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호페쉬 섹터 컴퍼니 <In your Room> & <Uprising>	3/22~3/23	LG아트센터
<Can We Talk About This?>	4/5~4/7	LG아트센터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4/5~4/8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립발레단 <스파르타쿠스>	4/13~4/15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카피크 <AGWA&Correria>	6/2~6/3	LG아트센터
강수진&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까멜리아 레이디>	6/15~6/17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립발레단 <포이즈>	6/29~7/1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유니버설발레단 <마농>	7/9~7/15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노보시비르스크 발레단 <백조의 호수>	7/26~7/29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램버트 댄스 컴퍼니	9/20~9/21	LG아트센터
국립발레단과 황병기 Project	9/27~9/28	LG아트센터
모스크바 시티 발레단 <백조의 호수>	9/26~9/28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마린스키 발레단 <백조의 호수>	11/11~11/13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정영두 <먼저 생각하는 자- 프로메테우스의 불>	11/17~11/18	LG아트센터



<스파르타쿠스>



카피크

<까멜리아 레이디>



소셜미디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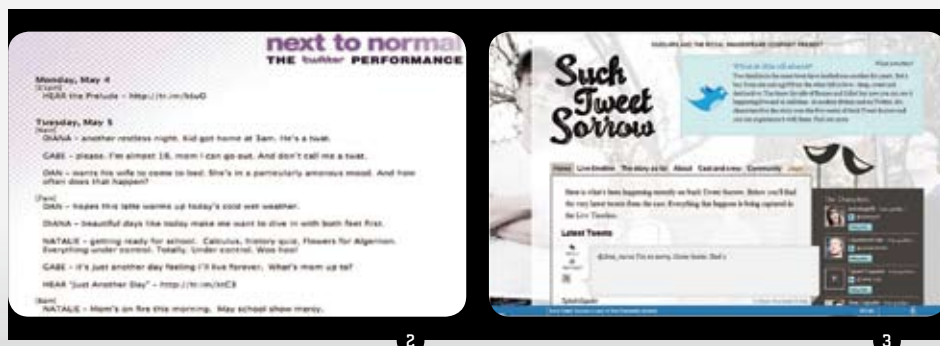
문화예술과 SNS 2

페이스북 사용자 숫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의 인구수에 해당한다. 트위터는 하루에 60만 개의 신규 계정이 생성되고 있으며, 구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인 구글 플러스도 벌써 25만 명의 계정을 확보했다. 유튜브는 매달 92억 페이지뷰를 생성할 정도로 위협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형성된 소셜미디어의 거대한 사용자 풀은 예술단체에겐 만나야 할 관객을 의미하게 되었다. 보다 직접적인 대화환경을 통해 거리를 좁히게 된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열성적 관객 외에도 잠재되어 있는 새로운 관객을 만나는 창구가 되었다. 또한 향유자와 예술가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내는 창작 플랫폼이 되어갔다. 소셜미디어가 지닌 개방과 참여 등의 특징으로 인해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지고, 다수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협업예술이 시도되는 등 문화예술계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변화의 불을 지피게 되었다. 문화예술 전 장르에 걸쳐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예술적 실험이 모색되면서 기존에 없던 장르를 개척하는 등 문화예술계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혁신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소통하는 무대예술, 트위터 퍼포먼스를 하다

가장 상업화된 무대예술 분야인 뮤지컬은 일찍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혁신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선보인 바 있다. 얼마 전 국내에서 라이선스화되어 무대에 오른 뮤지컬 〈Next to Normal〉은 토니어워즈 3개상에 빛나는 작품성과 흥행으로도 유명하지만, 2009년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트위터를 통한 혁신적 시도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당시 최초로 트위터(@N2Nbroadway)를 통해 전 공연을 35일간에 걸쳐 트위터에 담은 트위터 퍼포먼스(Twitter Performance)를 선보였다. 수준 높은 텍스트로 호평 받았던 작품답게 작품의 매력을 140자에 담았고, 다음 장면을 기다리듯 트위터 공연을 기다리는 팔로워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관심이 티켓 판매로 이어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위터 공연이 끝난 주에는 72%였던 관객점유율이 99%까지 올랐고 공연 폐막까지



- 1 자니 캐쉬를 추모하는 온라인 집단 협업 미술 프로젝트 'Johnny Cash Project'.
- 2 뮤지컬 〈Next to Normal〉은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최초로 트위터를 통해 전 공연을 35일간에 걸쳐 트위터에 담은 트위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3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영국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의 '서치 트윗 소로'.
- 4·5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품을 완성해가는 프로젝트 'The One Million Masterpiece'.

85%를 유지하면서 트위터를 통한 마케팅이 성공적인 공연의 일등공신이 되었다고 한다. 관객은 트위터를 통해 캐릭터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음악뿐 아니라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재관람을 고려했다.

전통 극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갔다. 가장 전통적인 작품이었던 셰익스피어가 가장 현대적인 플랫폼을 만난 것이다. 2010년 영국의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RSC)은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서치 트윗 소로'(www.suchtweetsorrow.com)를 선보인 바 있다. 고전을 트위터에 맞는 작품으로 각색하면서 젊은 언어로 현대화하였고, 주인공 배우가 직접 트위터 계정을 열어 동영상상을 올리는 등 실시간으로 등장인물의 역할을 하였다. 트위터 팔로워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인터랙티브 공연을 5주 동안 진행하면서 4,000개 이상의 트윗을 쏟아냈으며, 젊은 관객에게 외면 받던 연극을 화제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이 같은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다양한 공연단체로 확대되면서 그 사례가 다채로워지고 있으며, 실제적인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런던극장협회(Society of London Theater)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는 전통적인 광고나 잡지 리뷰보다 티켓세일즈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65% 이상의 관객들이 공연의 선택과 관람에 소셜미디어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연장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서 공연단체들에게 더욱 필수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참여하는 시각예술, 협업예술을 만들다

미술관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참여의 장을 만들어갔다. 관람객이 큐레이팅에 참여하는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고, 관람객을 작품에 참여시키기도 했으며, 대체로는 콘텐츠 공유채널을 통해서 소장품과 전시과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방문 경험 등을 나누면서 관람객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대화를 지속했다. 소셜미디어는 잠재되어 있는 관람객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창작에도 기여하면서 다양한 협업예술을 이끌어낸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으로 물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가 좁혀지면서 예술가들이 스스로 교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플랫폼으로 하여 예술가와 예술가가 협업하고 예술가와 아마추어가 협업하는 협업예술(Collaborative Arts)을 비롯하여 다수의 아마추어가 모여 집단지성을 이루어 만드는 집단협업예술(Crowdsourced Art)도 나타났다.

이러한 다수의 참여를 통한 예술은 인터넷 초창기부터 있어왔다. 누구나 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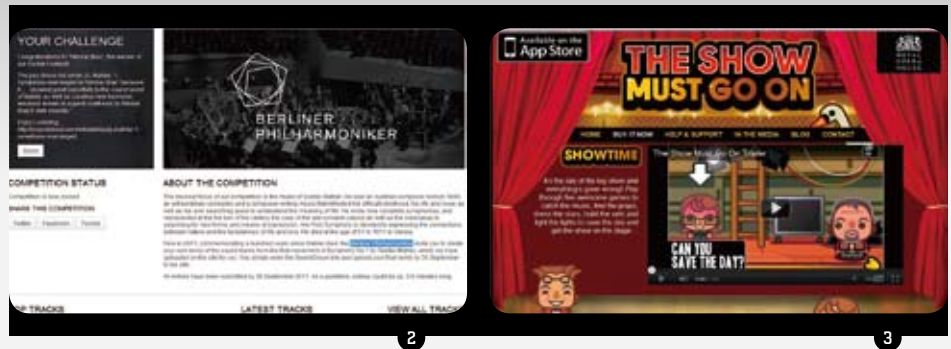
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게 개방하여 174개국 2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작품을 완성해가는 프로젝트인 'The One Million Masterpiece'(www.millionmasterpiece.com)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협업예술은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동영상 협업 등으로 발전한다. 컨트리 뮤직의 전설인 자니 캐쉬를 추모하는 온라인 집단 협업 미술 프로젝트 'Johnny Cash Project'(www.thejohnnycashproject.com)는 전 세계의 팬들이 한 사람당 한 프레임씩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려 기여하는 프로젝트로 다수의 작품이 모여 뮤직비디오 〈Ain't No Grave〉로 탄생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팬들의 생생한 후기까지 담아내면서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참가를 이끌어냈으며 현재도 개방되어 있어 작품은 꾸준히





- 1 LA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Bravo Gustavo'. 스마트폰을 지휘봉 삼아 누구나 LA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지휘해볼 수 있게 구성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이다.
- 2 베를린필하모닉은 말러교향곡 1번 1악장을 일반인이 직접 편곡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Berliner Philharmoniker Remix Contest'를 진행했다.
- 3 영국 로얄오페라하우스의 'The Show Must Go On'. 로얄오페라하우스의 무대 매니저가 되어 〈백조의 호수〉 같은 무대를 꾸며 볼 수 있는 아이폰용 게임.



진화 중이다.

또한 행위미술이나 거리미술 등의 현장에서 아마추어나 청중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이 디지털과 만나면서 다채로워졌다. 2009년 영국의 유명한 젊은 현대예술가 안토니 곰리는 100일만에 걸쳐 살아 있는 조각인 〈One & Other〉를 만들면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 시내 트라팔가 광장에 안토니 곰리가 설치한 조각물 '4th Plinth' 위에서 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 것이다. 무려 3만 5,000여 명이 신청했고 100일간 매 시간 참여한 인원이 2,400명에 달한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희망과 고통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였고 영국의 Sky Arts 채널을 통해 중계되고 웹사이트,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플리커를 통해 현장이 기록되었다. 일반시민이 예술에 직접 참여하면서 살아 있는 조각품이 되었고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협업예술이 되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겨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면서 고정되어 있는 거리의 공공미술이 아닌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이 되었다. 예술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며 발전하는 디지털아트나 미디어아트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시도가 나타났다. 트위터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단어, 사람들의 활동 내역 같은 데이터를 정보시각화(Data Visualization)하는 예술작품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소셜미디어를 예술의 직접적인 소재로 차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술계는 소셜미디어를 관객과 함께 예술을 만나는 장으로 만들고, 예술의 직접적인 소재로 활용하고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예술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혁신하는 순수예술, 게임을 활용하다

클래식, 무용 등의 순수예술 분야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은 가장 전통성 있는 예술장르가 디지털과 호흡한다는 점에서 보다 혁신적으로 다가온다. 디지털 홀을 통해 디지털 무대를 만든 베를린필하모닉의 경우, 2011년 가을 구스타프 말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말러교향곡 1번 1악장을 일반인이 직접 편곡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Berliner Philharmoniker Remix Contest'(remix-contest.berliner-philharmoniker.de)를 진행한 바 있다. 3~5분 길이로 각자 편곡한 곡을 사운드 공유 소셜미디어 채널인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에 올리도록 하여 우승자를 선발하였으며, 베를린필하모닉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다채롭게 활용하여 콘테스트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관객에게 리믹스라는 쉬운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개방하면서 적극적인 관객과의 소통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높은 충성도를 만드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확대되듯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소셜미디어 상의 좋은 대화소재가 되고, 소셜미디어와의 연동기능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와 미디어로서 소셜미디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트위터로 오페라 대본 공모 프로젝트

- 4 미술관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영상을 모아서 보여주는 'ArtBabble'.
- 5 무대 공연 영상을 볼 수 있는 'Classic TV'.
- 6 발레나 현대무용 공연을 생중계하고 무용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Tendu TV'.

트를 해 '트위터 오페라'(@youopera)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을 만큼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디지털의 접목에 앞서는 영국의 로얄오페라하우스는 얼마 전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혁신적인 아이폰용 게임을 공개하였다. 로얄오페라하우스의 무대 매니저가 되어 〈백조의 호수〉 같은 무대를 꾸며 볼 수 있는 이 게임은 EMI와의 협력을 통해 카리안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녹음한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등의 곡을 사운드트랙으로 활용한다.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쉬운 게임을 통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층이 오페라나 발레 같은 순수예술도 어렵지 않고 흥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

공연예술단체에서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젊은 스타 지휘자인 구스타보 두다멜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LA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 'Bravo Gustav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을 지휘봉 삼아 누구나 두다멜처럼 LA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지휘해볼 수 있게 구성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이다. 마에스트로에게만 허락된 '지휘'라는 새로운 예술체험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온라인 웹사이트(www.laphil.com/gustavo-files/game)를 열어 게임 결과를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추천하며 알릴 수 있게 하였다. 게임에 몰입할수록 곡을 세밀하게 이해하게 되며, 연주 장면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음악에 몰입하는 새로운 예술체험을 선사한다. 클래식 게임이라는 친숙한 장르를 도입시켜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순수예술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하고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숨겨져 있는 잠재 관객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개방하는 문화예술, 실시간 콘텐츠로 재탄생하다

최근 문화예술단체는 소셜미디어의 실시간성을 살리기 위해 라이브 스트림(Live Stream) 등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 세계 동영상에 한데 모여 있는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시도한다. 예술장르별로 동영상 콘텐츠를 모아 서비스하는 곳도 늘어났다.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을 필두로 MOMA, 구겐하임 미술관 등이 참여하여 미술관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영상을 모아서 보여주는 ArtBabble(www.artbabble.org), 클래식 공연을 비롯한 무대 공연 영상을 볼 수 있는 Classic TV(www.classicaltv.com), 발레나 현대무용 공연을 생중계하고 무용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Tendu TV(tendu.tv) 등이 그것이다. 문화예술계는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로 다양한 관객을 흡수하려는 노력과 함께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만나는 미래 관객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향유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문화예술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향유와 창작 전 분야에서 참여의 장을 열었으며 소셜미디어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실시



간 영상, 게임에 이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수의 지혜가 모이는 집단협업예술이 등장하고, 쉬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창작 기회가 많아지면서 관객이 함께 만드는 참여예술이 다각화되기도 하였다. 문화예술계는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트위터나 유튜브로 무대를 확장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이며,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숨은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예술 게임, 다채로운 예술 콘텐츠는 디지털과 예술현장을 매개하면서 소수에게 허락되었던 문화향유의 폭을 넓혔고, 소셜미디어의 열린 대화는 문화예술 현장을 재방문할 수 있게 하는 동인이 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활력이 되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촉발된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혁신의 움직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게 될 것이다.

겨울잠자

찬바람이 매섭다.

몸은 춥지만, 다시 찾아온 겨울의 공기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한다.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 아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신나게 미끄러지는 얼음판 위에서 밤늦도록 두 다리로 웃는다.

가든파르크 아이스가든(2월 12일까지 개장)

사진·글_최성열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최대진 개인전 〈Human Work〉



Installation View, 2010, Metropolis Gallery, Paris.

●
‘나꼼수’가 전국을 휩쓴 것도 모자라 뉴욕까지 진출했다. 미국 월가의 시위대에게 500인분의 피자까지 쓴 그들의 행보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꿨다. 술자리에서 모두가政치를 논하면서도 정작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투표는 무심했던 사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政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사회에 나꼼수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등록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것,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남아 있게 된 배경에 나와 내 가족의 한 표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해준 것이다. 정치란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사실을 새삼, 이제야, 뒤늦게, 발견하게 했다.

자신의 삶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행동이 우리로서는 낯설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거리를 많이 둔 집단 중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예술가들일 것이다.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보호한 화원에서 공적인 창작 활동에 전념한 이들이 있었지만, 더 높은 예술의 경지를 인정받은 이들은 문인들이었다. 그들은 외부의 요청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수양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글씨를 썼다. 그들 중에는 특히 중앙의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귀양지나 고향에서 작품을 남긴 사례가 많다. 서양의 미술은 정치권력의 강력한 후원 하에 발전했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대에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낭만적 예술가상이 부각됐다. 특히 광기에 싸인, 기행을 일삼는 천재 예술가 이미지가 강화되었는데, 일본을 통해 서양의 미술이 국내에 들어온 일제 강점기에 이러한 모습이 전형적인 예술가상으로 확산되었다.

생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예술밖에 모르는 예술가라는 이미지는 문학, 미술, 연극 등 여러 장르에 걸쳐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되었다.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 예술가란 어딘지 순수하지 못하거나 참된 예술가가 아니라는 뼈박한 시선도 존재했다.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예술가 집단을 향한 사회적인 탄압 역시 예술가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차단시키는 원인이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예술 지상주의가 미술과 문학 등 예술 전반의 가장 강력한 이념이었고, 예술가들의 현실 참여는 극도로 제한되었다. 1970년대 미술에서 모더니즘 미술이 대세를 이룬 것은 예술의 '자율성(autonomy)'을 추구한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이라는 내적 원인만큼, 우리 사회가 예술가들에게 허용했던 발언의 수위가 제한된 까닭도 있다. 정치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의 활동, 즉 저항시와 1980년대 민중미술과 민중문학은 예술계 내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예술, 비전문적인 예술로 평가절하되곤 했다. 그만큼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강력하게 작용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은 사적인 내러티브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않았다. 개인의 사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작품들을 '신변잡기'나 '개인적 취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왔다.

최대진의 드로잉에 끌리는 이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대안공간 루프'에서 12월 25일까지 열린 최대진의 개인전 〈Human Work〉는 다소 생경하게 여겨질 수 있다. 먼저 그의 작품은 모두 자극적 사적인 삶의 체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 사회적, 나아가 전 지구적 이슈와도 닿아 있다. 전시에서는 작가가 프랑스에서 미술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작업 중인 드로잉을 비롯한 오브제 작업들이 소개되었



〈판문점〉, mixed media, 130×28×45cm, 2009.

다. 꽤 긴 시간 동안 제작된 드로잉 중의 일부를 골라 보여주는데,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 것도 아니며 특정 주제로 분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들 간의 연관성을 찾거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I want candy'라는 문장, 'Nietzsche' 같은 단어, 'Different clouds, different skies', 'Waiting for UFO'라는 문구 등 서로 다른 맥락에서 나온 단어들이 무작위로 존재한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섞여 있는 각 드로잉 내에서도 관련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최대진의 드로잉에 담긴 텍스트와 이미지에는 어떠한 배경과 맥락이 있을지 모르나, 지금 그 드로잉을 마주한 관객으로서의 풀기 힘든 수수께끼를 마주한 것과 같다. 그 속에 등장한 이미지도 다양하다. 평범한 신용카드도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풍경도 있으며, 그냥 둥근 원 두 개도 있다.

전화통화를 하며 무의식중에 남긴 메모를 후에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단어인지, 뭘 적은 건지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전화로 나눈 대화중에는 맥락을 가졌던 단어들이 메모 속 단어로만 남아 있을 때, 마치 해독할 수 없는 암호처럼 느껴진다. 작가가 살아온 시간과 공간, 그 속의 체험들에 바탕을 둔, 분명 어딘가 그 단어와 이미지가 출발된 지점들이 있을 테지만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일체의 단서를 배제한 상태에서 볼 때는 암호문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암호를 풀거나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작가가 그 순간들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혹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미지와 새로운 소식, 사람, 풍경을 대하지만 우리는 그중 대부분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그중에는 웬지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가 닿는 사물, 사람, 혹은 순간이 존재한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맘에 걸려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남겨놓고 싶은 것들, 불가능한 줄 알지만 가까이 붙잡아두고 싶은 것들이

있다. 후에 그 이유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언어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큰 영향과 충격을 준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해 객관화하고 이해했다는 증거, 치유의 증거이다.

억압된 감정과 기억은 다양한 징후로 존재를 드러내며, 이미지를 통한 기록은 언어화하지 못한 감정을 드러내는 우회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억압에서 풀려나게 된다. 각각의 드로잉들도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드로잉들을 이끌어낸 삶의 순간들, 그 순간들의 존재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난 일부의 드로잉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작업실에 쌓여 있을, 또 지금도 쌓이고 있을 드로잉들을 이끌어내는 ‘우리 삶의 순간들’이 우리가 그의 드로잉에 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편린을 담다

전시장 1층 정면에 위치한 붉은빛의 포스터에는 미 전투기가 한 국군의 탱크를 끌고 가는 이미지 아래에 ‘I will I must’라는 문구가 써여 있다. 강력한 캠페인 문구와 같은 이 문장은 부시 대통령이 테러에 반대하여 선포한 연설에서 목적어를 지워 만들어졌다. 선동 포스터에 자주 쓰이는 붉은색 바탕, 한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문구가 섞여 있지만, 포스터에 어울리지 않는 홀려내리는 이미지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 때문에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단정할 수 없다. 작가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세우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뭔가 마음에 걸리고 귀에 와 닿는 미묘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다. ‘I will I must’라는 문구는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정당성’이 있음을 설득하는 정치적 수사법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난 일부의 드로잉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작업실에 쌓여 있을, 또 지금도 쌓이고 있을 드로잉들을 이끌어내는 ‘우리 삶의 순간들’이 우리가 그의 드로잉에 이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예전 작품들부터 쪽 보여주는 1층의 작품들이 작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면, 전시장에 머물면서 제작한 벽면 드로잉과 설치 작품으로 구성된 지하1층은 지금 그를 감싸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해 요즘 그의 머리에 떠올랐으나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준다.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보게 되는 흰 탑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쌓아올린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화장지 같지만 거기에는 창세기, 탈출기 등 성서를 구성하는 각 장들의 제목이 새겨져 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서양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이다. 지극히 평범한 재료인 화장지 위에 잘 보이지 않도록 새긴 성서의 제목들은, 일상적인 공간 속에 숨어 있는 기독교 문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작품이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성서에서 나온 텍스트의 내용 자체보다, 그 텍스트가 가까이 다가서야 겨우 볼 수 있도록 자국을 눌러 써여졌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종이 위에 잉크를 덧입혀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화장지에 글씨를 새겼다. 그는 이전에도 〈Temporary States N.1〉이라는 작품에서 두루마리 화장지에 텍스트를 새긴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눌러서 새긴 글씨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몸에 남긴 생채기처럼 잘 지워지지 않는다. 숨겨져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고 위기에 빠뜨린다. 라캉이 포의 추리소설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안전하게 숨기는 방법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다.

벽면에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의 초상과 비행기, 그리고 장엄한 건물의 드로잉 등이 섞여 있다. ‘Children your love will buy your smart brain’이라는 문장 아래에는 배급받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다. ‘Destroy big show’, 막대기를 꼭 쥐 주먹 옆에 있는 ‘I believed it’, 유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분수가 자리한 광장과 웅장한 건물, 그리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앞에 세워졌던 ‘명박산성’. 넓은 벽면 전체가 화면이 되었다는 점은 다르지만, 1층의 드로잉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출처에서 튀어나온 이미지와 텍스트가 나열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의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고, 그 대상들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도 복합적이다. 명박산성과 여고생, 전투기와 유럽 풍경을 서로 연결해 이해하려는 시도는 역시 실패가 예정돼 있다. 왜 그 이미지와 문장이 선택되어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작가 자신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 같다.



Installation View, 2011, Louvre Museum, Paris.



Installation View, 2008, Museum of Contemporary Art, Lyon.

피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이번 전시에서는 명박산성을 묘사한 드로잉만이 한국사회의 문제적 순간을 보여주지만, 최대진이 프랑스에서 발표한 작품 중에는 판문점과 철책, 야경을 뒤덮은 교회 십자가, 김현희가 폭파한 KAL기 등 우리 역사와 연관된 단서들을 반영한 작품이 많다. 통제와 규율에 효과적인 고등학교 건물을 본뜬 투명 아크릴 학교 모형 안에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세운 작품, 판문점을 탱크 두 대 위에 올려놓은 〈판문점〉을 비롯해 탱크, 철모, 비행기, 군인, 초소 등 한국사의 여러 상황들을 교차시킨 작품들이 있는데, 이번 개인전에서는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없었다. 전시기획과 운송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두는 지점이 그 기준이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일상 속에서 억압을 체험해야 했던 학교와 군대에 대한 기억은 사적인 체험인 동시에 동시대인들이 함께 겪은 공적인 기억이다. 거기에 개인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 가장 사적인 기억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의문을 표현할 때, 사회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인 주제에 대한 발언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작가 자신도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작가의 사적인 서사와 기록은 사회적인 주제와 맞닿아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스스로 정

치인들처럼 계산하거나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짊어내고 드러내는 지점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대진은 사적이면서 정치적이고, 숨기면서 오히려 주목시키고, 하나로 섞이지 않는 것들을 공존시킨다. 우리의 이해를 친절히 돕기보다는 사회불량과 혼란을 방조한다. 파악되지 않는 혼란 속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요소들을 놓고 헤매게 만든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지불식간에 깨달아버렸든,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것은 그 혼란을 겪어내야 한다는 사실이니까 말이다. 그의 작품 앞에서든, 각자의 삶 속에서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정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혼란 속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요소들을 놓고 헤매게 만든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지불식간에 깨달아버렸건, 그조차도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제일 명확한 것은 그 혼란을 겪어내야 한다는 사실이니까 말이다. 그의 작품 앞에서든 각자의 삶 속에서든 혼란을 피할 수 없고, 겪어내야 한다는 것만이 명징한 진리인 것이다.

끝으로, 계속 마음에 걸리는 사실 하나, 이번 전시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작품을 덜 보여준 것은 왜일까. 그 소재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탓일까 아니면 그 소재들에 우리가 무관심한 탓일까. 작가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무의식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일까.

글_ 이수정 대학에서 미학을,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Long Live Drawing!—디지털 시대의 드로잉〉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월간미술〉 대전 통신원, 부산 오픈스페이스 객원큐레이터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아트센터 나비 전시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 제공_ 대안공간 루프

나는 갈매기, 나는 여배우

연극 <갈매기>

● 최근 안톤 체홉에 대한 연출가들의 관심은 조금 과장하자면 열광이라 할 만한데 셰익스피어보다 체홉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2011년 봄 김석만 연출의 <갈매기>가 명동예술극장에서 올랐고(이 공연은 지촌 이진순 선생을 기념하는 것이었는데, <갈매기>가 선택되었다)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전후로 오경택의 <갈매기>와 강량원의 <세자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막했다. 규모 있는 중극장 무대이건 연출가 개인의 스타일이 도드라지는 실험 무대이건 체홉이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갈매기>는 단편소설 작가로서 이미 확고한 명성을 가지고 있던 체홉이 말년에 연달아 발표한 4대 장막의 첫 작품이다. 새로운

예술을 갈구하지만 무료한 시골영지에서 살아가는 청년 프레플레프, 그의 어머니면서 여배우로서의 꽃꽂한 자존심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아르카지나, 팬찮은 작가이지만 톨스토이나 푸르케네프만은 못하다는 자괴감에 휩싸여 있는 아르카지나의 애인 프리고린, 프리고린의 열렬한 숭배자이자 프리고린을 사랑하지만 버림받는, 여배우를 동경하는 니나. 그리고 그런 니나를 떠나보내고 바라보는 프레플레프. <갈매기>는 이렇게 예술과 사랑에 대한 동경과 그것이 엮여가는 아픔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르카지나의 시골 영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엇갈리는 사랑이 맞물려 있는 멜로드라마적 모티프 때문에 알렉산드리스끼 극장 초연에서는 엄청난 혹평이 쏟아졌고, 체홉은 “700년 동안 희곡을 쓰지 않겠다”고 할 만큼 크게 낙담한다. 하지만 체홉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극을 위한 새로운 희곡이 필요하다고 체홉을 설득한 스타니슬랍스키와 단첸코는 함께 의기투합하여 만든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갈매기>를 공연하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현대연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전설이 시작된다. 체홉의 희곡은 격동하는 갈망마저도 무료하게 스러져가는 삶의 비애를 삶의 그 모습 그대로 담담하게 그려내었고 스타니슬랍스키는 모스크바예술극장 단원들의 양상을 연기를 통해 미처 우리가 자각하기도 전에 스러져가는 삶의 갈등을 무대 위에 포착해내면서 심리적 사실주의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확립



했다. 한 번의 큰 실패와 전설의 시작. 어쩌면 연출가들을 사로잡는 체홉의 매력은 바로 그 간극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니나의 사랑, 프리고린의 망각

안으로는 모든 막을 걷어내어 그대로 드러난 극장의 검은 벽까지 뻗어가고 앞으로는 객석 깊숙이까지 돌출된 긴 사각의 무대. 그리고 무대 중간쯤(아마도 극장의 본래 무대경계선이었을 듯한 위치에) 세워놓은 금빛 장식을 한 프레임. 이 빈 공간이 〈갈매기〉(오정택 연출)의 무대다. 깊이를 강조한 텅빈 무대와 도드라지는 프레임은 주인공들의 예술과 사랑에 대한 동경을 매우 강렬하게 공간화한다. 연극의 시작도 그렇다. 관객이 입장하는 동안 이미 무대에 등장한 프레플레프는 분주하게 오가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프레플레프가 쓴 희곡을 니나가 연기하는 공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1막에서 새로운 형식과 니나에 대한 프레플레프의 갈망은 연극의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강조된다.

갈망의 절정은 3막과 4막 사이에 전개되는 프리고린과 니나의 탱고였다. 암전 없이 전개되는 막의 전환에 흐르는 음악은 3막에서는 프리고린과 니나의 격정적인 춤과 함께 무대 전체를 장악한다. 뚜렷한 갈등이 막 사건으로 전화되기 직전에 멈추어 버리는 체홉의 희곡에서 3막은 가장 격렬한 장이라 할 수 있는데, 아르카지나에 대한 프레플레프의 사랑과 원망, 아르카지나의 프리고린에 대한 맹렬한 집착이 프레플레프 아르카지나, 아르카지나 프리고린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무대는 때때로 육탄전(?)을 동반하면서 연출될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희곡에서 생략된 프리고린과 니나의 사랑을 강렬하게 무대화한다. 결국 프리고린이 아르카지나를 따라 떠나면서도 니나에게 자신을 찾아올 것을 당부하는 3막의 마지막 장면과 이어지는 탱고는, 이 매력적인 시골소녀에게 흔들리는 프리고린의 갈망과 프리고린을 통해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니나의 갈망으로 〈갈매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뺏아들인다. 반면 이 드라마의 마무리로 중요하게 해석되어온 마지막 장의 니나의 대사, “나는 갈매기, 나는 여배우”는 두 사람의 춤에 비해 매우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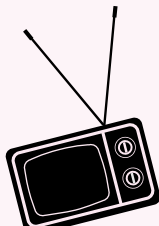
연극은 결국 프리고린이 건조하게 읽어가는 소설에서 끝이 난다. 추운 밤 따뜻한 거실에 모여 한담을 나누는 소리들이 아련하게 들리는 중에 무대 밖에서 들려온 총성이 프레플레프가 스스로에게 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희곡의 마지막 장면은, 무대 앞에 선 프리고린이 항상 소설의 모티브를 메모하는 수첩을 펼치고 읽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그때 무대 중앙에서는 프레플레프가 붉은 천에 휘감겨 쓰러진다. 잠깐의 총성으로만 전해



지는 프레플레프의 죽음을 무대 중앙으로 끌어내고 붉은 천으로 강조하는 한편, 프리고린의 건조한 목소리가 그 ‘죽음’을 돈을새김함으로써 이 갈망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비단 니나와 프리고린만이 아니라 이 연극에서 모든 인물들은 아우성친다. 컵을 싹고 흩어진 종이를 모으고 흩뿌리는 등 모든 인물들은 장면 장면마다 도드라지는 세세한 작은 행동들을 빠곡히 채워넣음으로써 발화되지 않는 자신들의 갈망을 드러낸다. 하여 때로는 연극 전체가 독백의 연속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프리고린과 니나의 사랑과 파국은 제각각의 아우성으로 흩뿌려질 수 있는 갈망들을 수렴하면서 강력한 낭만을 만들어낸다. 니나로 분한 전미도는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면서 그 낭만의 중심에 있었고, 박정환의 무심한 프리고린이 그녀의 애달픈 서사를 완성해준다.

관객들의 환호가 길게 이어지는 커튼콜은 이 무기력한 시대의 또 다른 갈망이었다. 각박해지는 세상과 무기력한 삶. 무대에서 낭만을 원하는 관객들의 갈망 말이다. 의사이기도 했던 체홉의 연극에 대한 신념,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는 신념은 이미 너무 먼 시절의 전설인가.



대중문화 탄생기

문화체험전
〈여기는 대한민국 1970KHz〉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아침이면 울려 퍼지는 새마을 노래, 추운 겨울 교실의 난로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양은 도시락, 이 교실 저 교실 고사리 손으로 움겼던 풍금, ‘김일 레슬링’을 틀어주는 TV가 있는 만화방, 아버지의 누런 월급 봉투, 첫 월급 타면 사는 빨간 내복….

지금은 어른들의 추억 속에만 남아 있는 1970년대 일상 속 풍경이다. 그때 그 풍경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 다시 등장했다. 2월 28일까지 열리는 〈여기는 대한민국 1970KHz〉 문화체험전이다. 단순히 “그땐 그랬지” 하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 여행이 전부가 아니다. ‘아름다운 유산, 대중문화 탄생기’라는 부제를 달았다. 1960~70년대 생활 유물들을 통해 지금 ‘한류’라 불리는 우리 대중문화의 뿌리를 찾아가는 체험 여행이다.

그 시절로 안내하는 타임머신은 국산라디오 1호 ‘A-501’. 전시장 입구에 세워진 대형 ‘A-501’ 모형에서 승차권을 받아 탑승하는 순간, 시계는 ‘A-501’이 탄생한 1959년으로 돌아간다. 타임머신의 목적지는 1959년부터 1981년까지. 먼저 ‘시간의 방’에 들어선다. 국내 최초 라디오와 텔레비전, 자동차 등 우리의 유물이자 자산인 20여 개의 물품을 볼 수 있다. ‘시간의 방’에서 태아의 심장소리가 들린다. 대중문화의 태동인 것이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40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이다. 8곳으로 나뉜 전시장은 그 시절의 생활상을 압축해 잘 표현해놓았다. 곳곳에는 저마다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동 경로도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경로를 따른다.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어떤 집에서 입고, 먹고, 즐기면서 살았을지 ‘보통 사람의 가정집’이 제일 먼저 공개된다. 부의 상징인 텔레비전이 거실 중앙에 자리하고, 벽에는 액자로 만들어놓은 흑백 가족사진이 눈에 띈다. 한쪽 방엔 당시 혼수품 목록 제1호인 재봉틀과 도자기로 된 요강도 보인다. 마당에는 수도펄프가 있다. 겨울이면 얼어붙을까봐 현웃가지들로 둘둘 싸매놓고, 한겨울엔 결국 뜨거운 물로 녹여 썼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집을 나서면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을 만난다. 그리고 그 어귀에 어김없이 자리 잡았던 구멍가게, 문방구, 만화방, 연탄가게, 이발소를 지나 학교로 가는 길과 정겨운 교실까지 모든 것이 옛모습 그대로다. 여기에 과거의 TV광고 영상과 ‘국민제조’ 노랫소리 등 아련한 옛 기억의 소리까지 더한다. 옛날 서점에는 〈선데이서울〉 〈소년중앙〉 등 각종 잡지들이 놓여 있고, 구멍가게를 재현한 ‘대성상회’에는 그 시절에 팔던 과자, 음료수, 껌, 담배 등 물품들이 그대로 자태를 드러낸다.

교문 밖 큰길을 따라서는 변화가, 즉 시내가 재현된다. 시내에는 낮거리와 밤거리로 나뉘 꾸며졌다. 낮거리에서는 극장 매표소와 대한민국 1호 흑백 TV(금성사)를 볼 수 있다.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2



3

- 1 추억의 만화방을 그대로 재현했다.
- 2 구영가게, 문방구, 연탄가게, 이발소를 지나 학교로 가는 길과 정겨운 교실까지 모든 것이 옛 모습 그대로다.
- 3 1970년대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음악다방 DJ가 직접 당시 가요와 팝송을 틀어주는 '추억의 음악실'.

방에서 그 시절 DJ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가면 고고장 등의 밤거리가 이어진다.

마지막 방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추억의 음악실'이다. 1970년대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음악다방 DJ가 직접 당시 가요와 팝송을 틀어준다. 물론 간단한 음료도 마실 수 있다. DJ가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들려주는 그 모습 그대로다. 대한민국 방송 DJ 1호 최동욱, '별이 빛나는 밤에'의 박원웅, '팝스 다이얼'의 김광한 등 전설의 DJ들이 진행한다. 전설의 DJ쇼는 1월 1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주말 오후 6시)에 열린다. 이렇듯 전시장 곳곳은 당시를 살았던 어른에게는 추억의 책갈피이며, 오늘을 사는 아이들에게는 현실의 풍요를 느끼며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다.

흔히 청바지와 생맥주, 통기타로 기억되는 1970년대. 번듯한 공연장도 고화질 텔레비전도 없었지만 그 시절에는 라디오와 해적판 LP, 낡은 통기타로 문화를 가꾸었다. 젊은이들은 라디오와 음악다방에서 팝과 청춘을, 그리고 꿈을 공유했다. 국민들은 TV를 통해 힘든 하루를 위안받기 시작했다. 그 시절 사회는 격동기였지만 대중문화는 태동기였다.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팝의 역동성도 그 시절에 뿌린 씨앗이라고 이번 전시는 밝힌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orea1970.co.kr 참조

글_심은하 집지쟁이로 10년 그리고 일파. 제목에 살고 제목에 죽는다?
사진_백중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진가.

● 국내 첫 전문 DJ 최동욱

영원한 라디오 스타



국내 DJ 1호가 세종로의 뮤직 박스에 나타났다. <여기는 대한민국 1970KHz> 문화체험전이 마련한 프로그램 '전설의 DJ쇼'에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최동욱 씨를 만났다.

디스크자키(DJ) 시대를 연 그야말로 '전설'이다.

당시만 해도 모든 방송을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시절이었다. 음악 지식 없이 음악방송을 진행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었다. 1964년 9월에 결국 폭발해버렸다. 이런 식으로는 방송 못하겠다고 녹음테이프를 던져버렸다. 방송 시작까지 30분도 채 안 남은 상황. 방송국이 발칵 뒤집혔다. 마이크 앞에는 내가 앉았다. 음악감상실에서 갈고뒹은 실력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나운서가 아닌 사람이 라디오방송 DJ석에 앉은 날이었다.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하드웨어의 변화일 뿐이다. 그런데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 요즘 우리 음악문화는 팝보다는 가요 일변도다. 이젠 퇴보다. K팝이 우리 것인가? K팝의 미래는 무엇인가? 글로벌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라디오의 미래는 무엇인가.

라디오가 발전을 하려면 첫째로 소수 정예화를 해야 한다. 미국 방송처럼 DJ와 PD를 겸하는 소수 정예 시스템으로 방송 품질을 높이면서도 인건비와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지금은 프로듀서 중심으로 방송이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전천후 방송인을 길러야 한다.

당신의 방송 철학은.

라디오는 오직 청취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 시간을 위해 더 수고를 하게 된다. 잡소리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음악 위주로만 방송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100% CD로만 방송한다. 미국에 15년 정도 있으면서 수집한 게 만 장 정도 된다. 방송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방송들이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각자가 개성을 살렸으면 좋겠다.

최동욱 씨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라디오 스타'다. 그는 2005년 5월부터 사비를 털어 매일 4시간씩 인터넷 생방송(www.radioseoulkorea.com)을 진행하고 있다. 그때 그 시절처럼 '나홀로' PD와 작가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1

Paris

제2의 ‘벨리브’가 간다

세계 최초의 공용 전기자동차 시스템, 오토리브

환경보호를 위한 인류의 노력이 각별하다. 국가적으로는 연일 환경국제협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등 환경보호는 윤리기준의 최상위에 자리잡았다. 각종 정책과 강령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도들이 환경보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요구한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녹색문제는 첨예한 논점이 된 지 오래다.

파리는 이러한 흐름에 가장 민감한 도시 중 하나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도시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의 주요 준거로 삼아왔다.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파리의 다양한 시도들은 겉보기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되돌려주는 녹색행정의 좋은 본모형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2월 5일에는 2개월간 시범 실시된 세계 최초의 공용 전기자동차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가 정식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

용 자전거 벨리브(Velib)의 성공에 힘입어 유사한 방식의 공공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발대식에는 파리시장 베트랑 들라노에와 프랑스 자동차 그룹 볼로레의 CEO 뱅상 볼로레 등이 참석하여 환경과 시민을 생각하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들라노에 시장은 “오토리브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투자”라고 선언하면서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해 1년에 5,000유로씩을 소비하는 것보다 오토리브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라며 “진정한 진보란 시민들에게 이동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토리브는 ‘automobile’(자동차)과 ‘libre’(자유로운)의 합성어로서 파리가 운영 중인 공용 자전거 시스템 벨리브의 후속임을 내세운다. 2007년 시작된 벨리브는 창원시의 ‘누비자’, 대전시의 ‘타슈’를 비롯, 세계 곳곳에 유사한 시스템을 보급시키며 공용 자전거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벨리브는 자전거 이용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파리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공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공 직후 파리는 고질적인 주차난의 해소와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는 공용 자동차 서비스의 준비에 들어갔다. 수년간의 조사와 투자를 거쳐 탄생한 오토리브와 함께, 파리는 녹색도시를 향한 실험의 선봉장에서 있다.



- 1 정류장에서 충전 중인 블루카. © Jean-Batiste Gurliat / Mairie de Paris
- 2 '공기처럼 자유롭게'라고 쓰여져 있는 블루카와 함께한 베트랑 들라노에 파리시장과 안느 하탈로 보좌관 © Henri Garat / Mairie de Paris
- 3 시범 운행 중인 모습. © Jean-Batiste Gurliat / Mairie de Paris

언제 어디서든 저렴하게 빌리는 자동차

오토리브는 250대의 차량과 250곳의 정류장으로 출발했는데,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2012년 중순경에는 전국 46개의 도시에 1,000곳 이상의 정류장과 2,000대 가량의 차량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확장으로 가뜰이나 모자란 일반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비난을 감안한 듯 파리는 지하에 대규모 오토리브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오토리브는 차량을 대여한 장소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일방향 시스템으로 필요한 장소에서 빌려 타고 목적지의 정류장에 주차하면 된다. 대여비는 파리 대부분의 일방향 운행 시간이 20~30분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1년 가입비는 144유로, 한 달로 따지면 12유로 가량으로 매우 저렴하며, 1주일 혹은 차량이 필요한 하루 동안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 20분에 3~5유로를 지불하고 그 이상 운행시에는 30분마다 4~8유로가 추가된다.

오토리브의 또 다른 매력은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수에 턱없이 부족한 충전소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전기차를 소유한 차주들은 앞으로 1년에 150유로를 지불하면 전국 각지에 설치될 오토리브 정류소에서 자신의 차를 충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매력을 앞세운 오토리브는 시범 운영 기간에만 600명이 가입했는데, 파리는 차후 8만 명의 가입자를 예상하고 있다.

오토리브에 사용될 차량은 프랑스 기업 볼로레가 투자해 탄생한 '블루카'로, 탄소 배출이 없는 100% 전기차다. 소음 없는 이 4인승의 전기차는 시속 130km의 속

도를 낼 수 있고, 네 시간 충전 후 최대 주행거리는 250km에 달한다. 페라리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피닌파리나가 디자인한 차체는 3.65m 길이에 1,120kg의 철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고, 볼로레가 15년간 1조 5,000억 유로를 투자해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됐다. 자체 내장된 컴퓨터가 중앙 관리실과 연결되어 있어 위급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연락되도록 설계되었다. 전기차가 지나치게 조용해 보행자에게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음기가 장착되었고, 아동용 보조의자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장치와 에어백도 탑재했다.

오토리브, 진정한 진보가 되기에는...

뱅상 볼로레는 "오토리브는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시켜 도시의 삶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지만, 모든 앞선 시도에는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다. 정류장의 확장과 관리, 사용자의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벨리브의 경우 크게 문제시되었던 도난과 파손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역시 큰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가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도난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토리브 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다. 개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승용차의 대체수단으로 온전히 오토리브를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결국 오토리브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가끔씩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할 터인데 그렇다면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과 구별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원자력을 주원료로 삼는다는 것도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다. 프랑스는 국가 전력의 76%를 원자력으로 생산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의존율을 보인다. 원자력 생산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전기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과연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정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렇게 다양한 감론을박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쨌든 오토리브는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을 파리로 집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 전역을 누비게 될 블루카의 실험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기대를 모은다.

참고 www.autolib.eu



1

New York

희극적인 수다 속, 날선 풍자를 담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회고전 겸 은퇴전 <올>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종종 그곳에 전시되는 작품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물 덕분에 더 주목받곤 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화가의 캔버스에 기울어져 있음을 고려해 화가가 보는 것과 똑같이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미술관의 벽을 기울게 설계했지만, 이는 작품 감상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였다. 기울어진 벽은 둘째치고, 크지 않은 전체 공간에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며 작품을 감상하는 구조, 건물 중앙에 넓게 자리한 원형의 빈 공간 등 구겐하임 미술관 자체가 이미 개성과 맛이 뚜렷한 공간이라 미술관에 어울리는 작품을 고르고 전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동시에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잘 전시한다면 시너지가 엄청나리라는 기대 역시 품게 된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회고전 겸 은퇴전인 <올>(All)은 이러한 구겐하임 미술관의 공간을 심분 활용한 전시다.

구겐하임은 지금껏 여러 공간에 하나 둘씩 설치되었던 그의 작품을 모아 미술관 중앙의 빈 공간에 매달았다. 일단 그 크기가 압도적인데, 걸린 작품 수만 해도 128점에 달해 <올>이란 전시 제목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뿔 대신 스쿠터 손잡이가 달린 흰 소, 권총 자살한 다람쥐 등 박제한 동물들이 우선 눈에 띈다. 박제 비둘기도 여기저기 붙어 있어 128점의 작품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양념역할을 하며 사진, 광고판, 초현실적으로 길게 늘어진 미니 축구 경기대 등 별별 것이 다 있다. 사람 모양의 밀랍인형도 눈길을 끈다. 큰 돌에 맞아 쓰러진 교황이나 작은 소년 크기의 무



2

1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을 모아 구겐하임 미술관 중앙의 빈 공간에 매달았다. © Solomon R. Guggenheim

2 <미니미>, 고무, 합성수지, 인조 머리카락, 페인트, 옷, 45×20×23cm, 1999. © Maurizio Cattelan

릎 꿇은 히틀러, 관 속에 누운 케네디 대통령, 냉장고 속에 있는 불안한 표정의 여자, 악동 희극배우처럼 보이는 작가 자신의 모습은 더없이 풍자적이다. 이탈리아 사람 특유의 희극적인 수다스러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사회·역사에 대한 풍자 감각이 폭발적으로 다가온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장면을 시각화해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현대미술의 기능이라 한다면, 그 기능에 충실한 작품들이다. 전체를 놓고 봐도 좋고, 하나하나씩 따로 살펴봐도 흥미롭다. 이 작품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맥락으로 전시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1989년부터 시작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세계를 명확하게 조명해볼 수 있다.

고서적의 모양새를 본떠 디자인한 전시 관련 서적과 지도처럼 생긴 전시 카탈로그도 미술관의 세심한 기획을 돋보이게 한다. '은퇴전'이라 이름 붙여 더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올>은 오는 1월 22일까지 계속된다.

홈페이지 www.guggenheim.org

현대도시의 구심점은 도서관이다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디자인한 재독 건축가 이은영

“12년이 걸렸을 정도로 많은 공을 들인 작품이에요. 애를 넣은 기본이 이렇지 않을까 해요.” 지난 11월, 재독 건축가 이은영 씨가 설계한 도서관이 슈투트가르트에 문을 열었다. 12년 전의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이다. 총 공사비 7,900만 유로가 투입된 정방형의 이 건물은 개관 이전부터 독일 언론의 관심과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이은영 씨의 건축 철학은 특별하다. 건축이란 “동시대의 문화집단이 문화양식으로서 공유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공유 의식이 희박해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우리 시대의 공유 언어를 모색하는 것이 건축가의 과제라고 본다. 그는 불과 30~50년 전까지 현대건축계에 만연했던 ‘조급함’을 비판한다. “현대 건축가들에겐 고전의 가치들을 거부해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조급함이 있었지요. 하지만 인류가 동굴에서 나와 수만 년의 역사를 통해 정제했던 건축의 연장선상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그는 건축의 고전적인 언어들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한다. 그 과정에서 재료, 테크닉, 비례 등도 우리 시대에 맞게 걸러져 나온다. 한편 그는 현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추상’이라고 설명한다. 현대건축이란 모든 군더더기와 비주체적인 요소를 버리고 건축의 원형을 추상화시키는 작업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도서관도 추상적, 기하학적 상징인 입방체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과거 한 도시의 구심점이 교회, 시청이었다면 현대도시에서는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는 지성의 심화, 지식 교류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의미를 강조한다. 슈투트가르트 신축 도서관은 이런 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그의 건축 물에는 도시의 중심을 나타내는 단순한 기하학적 상징들이 들어 있다. 또 도서관 안은 두 개의 중심 공간이 축이 된다. 이는 열람실과 도시의 중심에 자리한 심장 공간이다. 우리 건축유



1 재독 건축가 이은영.

2·3 건축의 원형을 살려 디자인한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산의 지속적인 테마가 되었던 건축의 원형을 살린 것이다. 가령 중앙에 계단형으로 이어진 열람실은 과거 알렉산드리아 시대부터 프랑스 혁명 시대까지 반복적으로 테마가 되었던 공간이다. 중앙의 심장 공간은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된 로마 판테온을 본떴다. 이는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에서도 계속되던 테마였다. 구심점이며 구형의 공간이었던 판테온을 그는 정방형의 구심적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30년 동안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양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교수로도 재직했지만, 건축가로서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28세 때 독일로 유학을 왔던 그는 서구 문화에 흠뻑 젖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곤 했다. “20년간 유럽의 문화를 배웠어요. 또 제가 한국에서 살아온 28년 동안 한국인으로서 알게 모르게 용해된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도서관에도 동양적인 사유, 정서가 반영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은 이러한 이은영 씨의 삶과 건축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체험 프로그램 '내 이웃의 주방'

캄보디아 주방을 습격하다



이웃집 부엌 구경이 재미있다는 건 주부라면 누구나 안다. 쌀독이며 냉장고, 주방 조리도구들을 슬쩍 훑어보기만 해도 이웃의 식습관이며 생활방식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인장과 금세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된다. 부엌으로의 초대는 내 집의 속살,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감추지 않고 보여주겠다는 친근감의 표시인 셈이다.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12월 10일 마련한 예술체험 프로그램 '내 이웃의 주방'에, 캄보디아 부엌을 구경하러 갔다.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맞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와 부모 15명과 함께였다. 우리를 초대한 이웃은 캄보디아 출신으로



‘내 이웃의 주방’ 기획한 최영환 작가

“요리도 소통의 매개다”



최영환 작가는 2011년 5월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6에 입주했다. 미국에서 개념미술을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와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라는 주제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튜디오 입주기간은 1년 6개월. 개인 작업을 하기도 빠듯한 시간인데, 그는 왜 자신의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요리 수업’을 기획한 것일까.

“예술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예요. 요리 역시 예술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데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까웠고, 요리를 만들고 나누면서 소통의 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는 틈이 날 때마다 서울의 재건축 지역을 돌아다니며 얼마 뒤 사라질 그들의 집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한다. 처음엔 당연히 거절이고, 이상한 사람이라며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다. 매일 출근도장을 찍어가며 깃듯이 인사하고 막걸리도 함께 마시면서,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하고 주민들이 직접 쓴 편지를 모으는 작업이 바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다.

“서울의 ‘빡살이’식 재건축 방식이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성찰하는거죠. 집은 잠깐 머무는 공간, 사라져도 그만인 공간이 아니라 삶이 묻어 있고 일상을 대변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주거’와 ‘부동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을 바꿀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서울의 한 골목에서 “당신의 집에게 편지를 써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묻는 젊은이를 만나거든, 이토록 깊고 넓은 뜻이 있다는 점을 헤랑해 기꺼이 동참해주길!

200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둔 피린 씨. 평소 보기 힘든 이국의 부엌인 만큼, 먼저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이며 오늘 주인장이 선보일 요리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위기를 보니, 캄보디아 국기에 앙코르와트 사원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사람이 나만은 아닌 듯하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 시간 넘게 가야 하는, 인도차이나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기온이 20도가 넘고 한 해에 무려 세 번이나 추수를 한다니! 한국과 지리, 기후, 역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캄보디아는 지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훨씬 큰 ‘머나먼 남쪽나라’다. 그런데 이 남쪽나라의 아름답고 씩씩한 여성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시작했다. 피부색과 언어,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며 한국인으로 살아간다. 캄보디아는 적금 부어가며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이국 땅이 아

니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이웃이 되었다.

‘록락’을 아시나요?

오늘 부엌에서 함께 만들 요리는 양념해 볶은 소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새콤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록락’(Lok Lak)이다. 3모작이 가능한 캄보디아의 주식은 당연히 쌀이고, 쌀밥과 몇 가지 반찬을 함께 차린다는 점에서 한국의 식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조리대 위에 놓인 식재료 역시 토마토, 오이, 마늘, 상추 등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이다. 눈에 띄는 식재료는 세 가지. 레몬과 타이 고추장, 멸치액젓이다. 캄보디아 요리가 생

준비물

소고기(안심), 양파, 상추, 토마토, 오이, 마늘, 멸치액젓, 타이 고추장(타이 핫소스), 레몬, 소금, 설탕, 후춧가루

*** 소스**

1 오목한 그릇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적당량 담는다.



2 레몬 한 개를 4쪽으로 썰어 즙을 듬뿍 내고 설탕을 조금 섞는다.

소한 사람들도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이나 베트남 요리는 맛본 적이 있을 터. 덥고 습한 이곳 기후를 떠올리면 시큼하고 톡 쏘는 레몬즙과 매콤한 타이 고추장(타이 핫소스)을 넣은 요리가 많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의외의 재료인 멸치액젓은 캄보디아의 생선 젓갈 '브로혁'의 대용이다. 피런 씨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 젓갈을 만든 뒤 건더기를 거르고 국물만 모아 한국의 간장처럼 쓴다"고 설명했다.

소금, 후추, 설탕에 레몬 한 개를 통째로 즙을 내어 소스를 만들고, 부드러운 소고기 안심을 써는 것으로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됐을 때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내 이웃의 주방'을 기획한 최영환 작가는 칼로 썰고 기름에 볶는 룩락 만들기에 애초 아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궁금한 것 투성이인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앞다퉈 칼질을 해보겠다고 나섰고, 결국 함께 온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모든 재료를 아이들이 써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최영환 작가와 피런 씨는 행여 '피 튀기는' 상황이 생길까 노심초사했고 부모들은 소고기 힘줄을 발라내는 등 줄지에 '주방보조' 역할을 하느라 분주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재밌다!", "또 해보고 싶다!"를 연발하더니 "내가 다 썰었다!"며 잔뜩 폼을 낸다. 덕분에 요리 시간은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스튜디오 가득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멸치액젓으로 양념해 마늘과 함께 볶은 소고기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썬 신선한 야채를 레몬즙 듬뿍 넣은 소스에 찍어 먹는 맛은 대체 어떨까? 머릿속으로 맛을 그릴 줄 안다는 대장금이 온다 해도, 이 낯선 요리의 맛을 금세 떠올리진 못할 것 같다. 그동안 룩락 말고 어떤 요리가 '내 이웃의 주방'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맛은 어땠는지 최영환 작가에게 물었다. 필리핀의 잡채쯤 되는 '판짓비온과' 베트남 튀김만두인 '짜쵸'를 만들었던다. 최 작가는 "요리가 완성되자마자 마파람에 게논 감추듯 사라질 테니 두고 보라"고 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성북예술창작센터에는 미술, 무용, 연극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 8개 팀(개인작가 3인

*** 소고기볶음과 야채샐러드**

3 소고기를 도톰하고 길쭉한 모양으로 어슷어슷 썬다.



4 썰어놓은 소고기에 멸치액젓, 소금, 설탕을 적당히 넣고 버무린다. 액젓 특유의 향과 맛이 싫다면 간장으로 대체해도 된다.



5 토마토, 양파, 오이, 상추 등 준비한 야채를 소고기와 비슷한 크기로 썬다. 마늘은 잘게 다진다.

오늘 부엌에서 함께 만들 요리는 양념해 볶은 소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새콤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롤락'이다. 3모작이 가능한 캄보디아의 주식은 당연히 쌀이고, 쌀밥과 몇 가지 반찬을 함께 차린다는 점에서 한국의 식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 5개 팀)이 입주해 있고, 작가들은 각자의 스튜디오에서 개인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론 대중들을 위해 다양한 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일반 학원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접할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인데다 모두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내 이웃의 주방'은 특히 인기가 높아서, 참가자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빈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최 작가가 '요리'를 매개로 예술체험 수업을 마련한 이유가 궁금해 질문을 이어가려 했으나, 어느새 다 익은 소고기는 타이 고추장 덕분에 먹음직한 붉은색이 돌고, 아이들은 완성된 요리 접시를 든 채 '인증샷' 놀이에 들어갔다. 최 작가는 미리 지어놓은 쌀밥을 밥통째 가져오겠다고 총총히 자리를 떴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잔칫집 분위기가 됐다. 마늘을 볶을 때만 해도 특유의 향에 인상을 찌푸리며 "맛이 없을 것 같다"고 투덜대던 아이가, 제일 먼저 소고기볶음을 한 점 집어 들었다. 엄마들은 "야채와 고기를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마늘과 멸치액젓 향이 배인 소고기와 야채를 소스에 찍은 뒤, 상추쌈을 만들어 입에 넣어보았다. 처음 만났는데 어쩐지 낯설지 않은 친구 같은 맛이다. 오감이 즐거운 캄보디아 부엌 구경은 두 시간에 걸쳐 마무리됐건만, 참가한 부모들은 소고기볶음과 야채, 그리고 쌀밥을 한데 섞은 '비빔밥'을 만들어 롤락의 한국화에 기여하느라 스튜디오를 떠날 줄 몰랐다.

성북예술창작센터 <http://cafe.naver.com/sbartspace>

글_ 이미경 요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이자 독립 편집자.

사진_ 백종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진가.

오늘의 요리사 피런 씨

“요리를 통해 캄보디아를 알리고 싶다”



피런 씨가 고국 캄보디아를 떠나 한국에 온 때는 2006년 11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었다. 그가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캄보디아 이주 여성을 위한 상담사로 열심히 활동 중인 이유는, 5년 전 고향을 떠나 한국에 첫발을 디뎠을 때의 먹먹하고 답답했던 심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상담 전화 중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가장 빈번하다는 점이 피런 씨는 가슴 아프다. 눈물과 한숨 섞인 고민에 '고향말'로 대답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을 소개하거나 직접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요리사 피런 씨의 요리 실력은? “집에서 롤락 만들기를 미리 연습했는데, 연습 때보다 잘 안 돼서 속상하다”고 한다. 요즘 요리를 통해 캄보디아를 알리고 싶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 피런 씨의 요리 실력은 '본의 아니게'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한다.



6 중간불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양념한 소고기를 넣고 함께 볶는다.



7 소고기가 반쯤 익으면 물을 조금 붓고 타이 고추장(타이 핫소스)을 넣어 익힌다. 타이 고추장은 너무 맵지 않게, 붉은색이 보기 좋을 정도로만 넣는다.



8 큰 접시에 미리 썰어둔 야채를 담고, 야채 위에 볶은 고기를 올리면 완성. 고기와 야채를 소스에 찍어 쌀밥과 함께 먹으면 된다.

Must 7

01 지루할 틈 없어라

연극 <노인과 바다> | 1월 21일까지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백 | 02-3274-8600

'2011 올해의 젊은 연극인상'을 수상한 김진만이 5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각색하고 연출한 작품.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된 고전명작의 놀라운 반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소설이 연극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극적 재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03 속풀이 쇼쇼쇼

뮤지컬 <막돼먹은 영애씨 On Stage> | 1월 15일까지 |

컬처스페이스 엔유 | 1577-3363

대한민국 평균을 밀도는 안티 S라인의 소유자 영애씨를 보라. tvN 히트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가 뮤지컬로 변신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영애씨의 일상사는 '여성을 제대로 말하는 드라마'로 자리매김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캐릭터와 에피소드를 뮤지컬 무대에 맞게 새롭게 펼쳐낸다.

03



02

02 나의 위로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 김미월 지음 | 창비 펴냄

2011년 제29회 신동엽창작상을 수상하며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떠오른 김미월의 소설집. 그녀의 소설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을 남몰래 펼쳐보는 작가의 섬세한 눈길, 허황된 낙관도, 세련된 냉소도 아닌 다만 꾸밈없는 현실 직시야말로 격려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04 여기는 지구행성

〈하늘에서 본 지구〉 특별전 | 2월 26일까지 | 서울시립미술관 | 02-2124-8800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땅은 어떤 모습일까. 세계적인 항공사진 작가 안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사진과 비디오가 전 문화부 장관 이여령의 글과 함께 전시된다. 지난 20여 년간 해 온 '하늘여행'의 정수만을 골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통해 희망의 지구를 제시한다. 마치 새가 된 기분으로 70억 명이 함께 살고 있는 지구의 얼굴과 그 사연을 만날 수 있다.



05 희망의 재구성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 | 엄기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이게 사는 건가' 삶을 때 힘이 되는 생각들이 필요하다. 인문서로는 드물게 2만부 이상 판매되며 주목을 받았던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의 저자 엄기호가 답한다. 왜 더 나은 삶을 기대할수록 절망하게 되는가, 바쁘게 살면 살수록 왜 우리의 삶은 텅 비어 가는가에 대해, 동어반복의 자기계발이 아닌 다른 삶을 꿈꾼다.



05

06 신난다 재미난다

2012 어린이 우수공연축제 | 1월 4일~3월 4일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 02-2280-4114

매해 전석 매진이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아동극 우수작을 엄선, 국립극장 무대에서 재공연하는 축제다. 올해는 4개 극단이 참여해 참신하고 아기자기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극단 예가의 〈늑대가 그랬대요〉, 극단 찰리의 〈찰리아저씨의 마술공장〉, 창작공동체 얼굴과 얼굴의 〈옥신각신 토끼, 자라〉, 극단 건의 〈돈키호테〉 등이다.



07 고품격 신년음악회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 1월 18일 오후 8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599-5743

1978년 창단되어 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온다. 요한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인 페터 구트가 창단했다. 전통적인 고전음악에서부터 빈의 상징인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까지 '빈 음악'의 정수를 선보여 찬사를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의 협연자로는 유럽 메이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을 도맡고 있는 소프라노 임선혜가 나선다.

Cultural Calendar

1 월 의 재 단 소 식

01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극	권력유감	대학로극장	1/4(수)~1/15(일)	02-766-0773
무용	시간 위를 걷다, 변형된 감각, 시간 속의 기억	서강대학교 메리홀	1/6(금)~1/7(토)	02-705-8743
	당신은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아르코예술극장	1/10(화)~1/15(일)	02-3668-0007
		다락스튜디오		
	파사(파사), 소맷짓(변경)을 휘날리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19(목)~1/20(금)	02-760-4840

다원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다원예술	소리 찾는 소녀(가제)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1/4(수)~1/8(일)	정보소극장 02-3673-0554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남산예술센터				
공연	풍찬노숙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1/18(수)~2/12(일)	02-758-2150

서교예술실험센터				
프로그램	2011 시민대상 프로그램 '서교음악싸롱'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3호실	1/2~12/31(매주 월)	02-333-0246
자체기획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송년아트패키지 '인디밴드 강의 - 하찌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데이트'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3호실	~1/20(매주 금)	
전시	놀이와 인간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지하전시장	1/13(금)~1/29(일)	

금천예술공장				
전시	2011년도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 귀국보고전 및 결과보고 워크숍	금천예술공장 PS333	2011/12/28(수)~1/10(화)	02-807-4121

신당창작아카데미				
전시	신당생활사박물관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2011/12/23(금)~1/5(목)	02-2232-8833

문래예술공장				
강습	장롱 속 기타 꺼내기 4기	문래예술공장 3층 녹음실	2011/11/7(월)~1/12(목) 매주 월, 화, 수, 목	02-2676-4300

성북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초등학생 동작치료	성북예술창작센터	~1/12(목) 매주 화, 목	02-943-9300
전시	금선희 예술 순례의 길	성북예술창작센터	1/4(수)~1/11(수)	
	가난뱅이모임, 별을 쬔 사람들	성북예술창작센터	1/14(토)~1/21(토)	
	극단마실_너랑 나랑은	성북예술창작센터	1/26(목)~2/1(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나의 특별한 동화 이야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29(수)	02-871-7400, 7417
	가족 대상 뮤지컬 워크숍 '동글게 동글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7(토)~2/4(토)	
	예술로 키우는 우리 아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4(수)~2/15(수)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프로그램	아이스가든 (아이스링크)	가든파이프 중앙광장	2011/12/9(금)~2/12(일)	02-2157-8770
전시	두근두근 탕글섬의 비밀	가든파이프 만남의광장(B1)	2011/12/1(목)~1/15(일)	
	타일벽화 전시	가든파이프 라이프-웍스	상설	
	연결통로			
교육·체험	어린이 가든아이스쿨	가든파이프 만남의광장(B1)	1/7(토), 1/14(토)	

S F A C N e w s

1 월 의 재 단 소 식

01



신당생활사박물관



금천예술공장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 귀국보고전

매주 금요일은 하찌 아저씨 만나는 날

하찌 아저씨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데이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1 서교예술실험센터 송년아트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우쿨렐레 전문 연주가 하찌에게 우쿨렐레 연주법을 배우고 함께 연주하는 기회를 갖는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된다.

일시	2011/12/2~1/20(매주 금)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3호실
수강료	8만 원
문의	02-333-0246

신당창작아케이드가 발견한 재래시장의 예술

신당생활사박물관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좁게는 신당동 재래시장(중앙시장)과 넓게는 청계천, 동대문 일대의 황학동 만물시장에 인접해 있다. 이러한 장소적 특징을 고려해 시장 내에 입점한 입주작가 '이웃상회'는 인근 지역 상인들의 경험과 지혜로 탄생한 독특한 생활 고안품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작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예술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예술 시제품과 더불어 한선경 작가의 '예술가표 선정이뽕'과 서울문화기업 지원 선정 사업 'Art in 자판기'의 쇼케이스도 함께 마련된다.

일시	2011/12/23(금)~1/5(목)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문의	신당창작아케이드 02-2232-8833,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0246

금천예술공장의 독특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

놀이와 인간

유량단케이(백현주 외 8명)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복디자이너, 시각예술

가, 비디오아티스트, 설치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 미술가들이 놀이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쌍방 교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미디어아트 콜렉티브 그룹이자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이다. 이 그룹은 놀이를 4개 영역(경쟁, 운, 모의, 현기증)으로 분류하여 놀이의 사회적 역할과 놀이가 문화 발달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 로제 카이와의 동명의 사회학 책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선보인다.

일시	1/13(금)~1/29(일)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및 지하 전시장
문의	02-333-0246

일본 뱅크아트1929, 스페인 앙가에 가다

금천예술공장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은 2011년도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의 뱅크아트1929(BankART1929) 레지던시에 2개월간 참가한 최선 예술가와 스페인의 앙가(Hanga) 레지던시를 3개월간 경험하고 온 백현주 예술가의 귀국보고전시를 개최한다.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금천예술공장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레지던시를 경험하고 돌아온 두 예술가의 예술체험과 생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가 전시될 예정이다.

12월 28일(수) 오후 5시에는 일본 뱅크아트1929에서 온 푸드 아티스트 아사코 사사키(Asako Sasaki)가 준비한 오프닝 파티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 오프닝에 앞서 오후 2시에는 2011년도 금천예술공장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작가 3인의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경험 공유를 위한 결과보고 워크숍이 개최된다. 워크숍에는 박능생(에이팩스아트), 최선(뱅크아트1929), 백현주(앙가) 작가와 시각예술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금천예술공장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예술가의 해외 진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예술가의 교류 활성화를 지향한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가족 대상 뮤지컬 워크숍 <동글게 동글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학부모 대상 겨울방학 특강 <예술로 키우는 우리 아이>

일시	전시 2011/12/28(수)~2012/1/10(화) 10:00~18:00 (12/31, 1/1 휴관)
	오프닝 2011/12/28(수) 17:00 워크숍 2011/12/28(수) 14:00
장소	금천예술공장 PS333
문의	02-807-4800

성북예술창작센터 2기 입주예술가 기획전시

너랑 나랑은

성북예술창작센터 2기 입주예술가 극단마실의 프로그램 결과 전시 <너랑 나랑은>이 '갤러리 맺음'에서 개최된다. 2011년 하반기 입주예술가로 활동 하면서 극단마실이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시민들과 마주하며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스케치한 전시다. 18개월 미만의 아기와 그 엄마들이 모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수놓으면서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조각보에 담겨 있는 베이비 드라마 <조각보>,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함께 만든 체험형 공연으로 관객이 주체가 되어 공연을 완성해가는 교육연극 <사들수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 속에 담긴 나와 너의 이야기를 찾고 만났던 연극놀이 여행 <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시	1/26(목)~2/1(수) 10:00~18:00
장소	갤러리 맺음
문의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체험전시

나의 특별한 동화 이야기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예술체험전시 <나의 특별한 동화 이야기>를 마련한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발'에서 열리게 될 이 전시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김태형과 박경민, 두 작가의 주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나의 특별한 동화 이야기>는 일러스트전의 단순 관람을 넘어선 예술체험전시의 성격을 갖는다. 작품을 단순 관람하는 데서 그치지 않

고 전시 감상 후에 작가로부터 직접 일러스트를 배우고 그려볼 수 있다.

이번 예술체험전시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시간은 6세반, 7~8세반, 9~12세반으로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참여할 수 있다. 관람비 및 참가비는 없으며, 회당 참여인원은 각 10명이다. 체험을 제외한 관람은 전시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일시	2011/12/28(수)~2012/2/29(수)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발'
문의	02-871-7400, 7417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가족 대상 뮤지컬 워크숍

동글게 동글게

뮤지컬 전문강사에게서 배우는 뮤지컬 워크숍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진행된다. 2~5인 이내의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워크숍에 참가하여 뮤지컬의 기본 요소인 노래와 율동, 연기까지 두루 익힐 수 있다. 단, 신청서를 미리 접수 받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참가 가족을 선정할 예정이다.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2회 워크숍(10:30, 14:00)이 각 90분간 진행된다.

일시	1/7(토)~2/4(토)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씩'
문의	02-871-7400, 7417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학부모 대상 겨울방학 특강

예술로 키우는 우리 아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 대상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총 4회로, 1~2회는 소아정신과



가든파이버 아이스가든

전문의와 교육심리학 교수의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실제 부모로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풀어나가는 강연이며, 3~4회는 어린이예술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들의 생생한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이다. 수강인원은 학부모 50명이며, 참가비는 3,000원이다.

일시	1/4(수), 1/17(화), 2/1(수), 2/15(수) 10:30~12:00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밭'
문의	02-871-7400, 7417

가든파이버 <문화술프로젝트> 겨울 프로그램

아이스가든

아이스가든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오픈하고 가장 오랜 기간 운영하는 야외형 아이스링크로, 1회 최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지난 12월 9일에 개장한 아이스가든은 링크 옆에 설치된 8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중앙광장 위에 설치된 스카이라이프의 LED 조명이 빛을 발해 화려하면서도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이스가든은 2012년 2월 12일까지 매일 9회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이며 주말은 오후 10시,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31일에는 밤 11시 10분까지 특별 연장 운영한다. 이 밖에 스케이트 강습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	2011/12/9(금)~2/12(일)
장소	가든파이버 중앙광장
입장료	소인(4세~중고생) 1,000원 대인 2,000원 (스케이트 대여료 별도 1,000원)
문의	02-2157-8770



가든파이버 <두근두근 탱글섬의 비밀>



가든파이버 <가든아띠스쿨>

가든파이버 <문화술프로젝트> 어린이특별전시

두근두근 탱글섬의 비밀

가든파이버 지하공간인 만남의광장에서는 전시감상과 놀이가 접목된 문화술프로젝트의 두 번째 어린이특별전시 <두근두근 탱글섬의 비밀>이 열린다. 지하공간에 설치된 9개의 기둥에는 바다와 섬, 배, 나무 등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바닥에는 기둥을 잇는 통로가 라인테이프 드로잉 등으로 설치돼 공간 전체가 마치 보물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보물섬과 같이 조성된다. 곳곳에 그려진 그림과 설치 작품을 감상하며 그림 그리기 미션을 수행한 후 왕관 선물을 받는 미술놀이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된다. 미션 성공 기념사진을 걸어두는 나무작품을 설치해 전시 참여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했다.

일시	2011/12/1(목)~1/15(일) 10:00~20:00
장소	가든파이버 만남의광장(스프링플라자 B1)
입장료	무료
문의	02-2157-8771

가든파이버 <문화술프로젝트> 소품 만들기 체험

가든아띠스쿨

검정, 빨강, 노랑, 파랑 등 색색의 라인테이프 드로잉으로 피크닉 바구니, 카메라, 모자, 원피스 신발, 먹음직스러운 머핀과 사탕을 직접 만들어본다. '프로젝트그룹 옆' 작가들이 우드락으로 먼저 만들어놓은 소품으로 아이들과 꾸미기 수업을 진행한다. 신기한 소품 만들기 체험 참가신청은 문화술프로젝트 블로그 www.g5culture.com을 통해 하면 된다.

일시	1/7(토), 1/14(토)
장소	가든파이버 만남의광장(스프링플라자 B1)
입장료	무료
문의	02-2157-8771

당신의 얼굴이 문화, 그리고 서울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전시장, 공연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해당 호 월간지를 보내드립니다.

● 성북예술창작센터 〈연극놀이여행-초콜릿은 싫어〉 참가자

김소람, 신민준, 신수민, 안륜하, 황금강

서울 연희초등학교 5명의 용사들이 성북예술창작센터에 뒀다.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놀도 프로그램 〈연극놀이여행-초콜릿은 싫어〉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들을 ‘용사’라 부른 건, 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아이들에겐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극놀이여행-초콜릿은 싫어’는 극단 마실 단원들이 준비한 종이인형극을 다 함께 본 뒤 참가한 아이들의 경험을 동작으로 표현하고 그림도 그리고 공동체 놀이도 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예술체험수업은 난생 처음이라, 부끄러워 몸이 배배 꼬이고 울음이 터지면 어쩌나 고민했다고. 그렇다면 사진 왼쪽 왼쪽 친구부터, 수업 참여 소감은?

김소람

대~박 재밌어요! 종이인형극에서 엄마가 지아 마음을 몰라주니까 불쌍했어요.

신민준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준 적은 별로 없는데... 있었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신수민

자기가 원하는 걸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가 그린 그림으로 1월에 전시회를 한대요!

안륜하

원하는 걸 그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출근도 안 하고 우리 가족 셋이 아주 멀리 오랫동안 놀러 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히히.

황금강

100점 만점에 99점. 1점이 모자라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 이미경

김소람, 신민준, 신수민, 안륜하, 황금강



심수은

● 서교예술실험센터 〈하지와 함께하는 우쿨렐레 데이트〉 수강생

심수은

20명 조금 넘는 수강생 대부분이 우쿨렐레 한번 만져본 적도 없는 초보자들. 그런데 심수은 씨는 귀엽고 앙증맞은 자신의 우쿨렐레를 꺼낸다. 독학으로 조금씩 공부하다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우쿨렐레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한다.

어떻게 우쿨렐레를 시작하게 됐나.

휴대가 간편하고 다른 악기보다 연주가 쉽다고 해서 독학으로 조금씩 익혔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동료 연주에도 적합한 악기란다. 아이들도 쉽게 익힐 수 있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더라. 오늘 악기를 학교에 가져갔는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데이트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아무리 쉬운 악기라고 해도 독학으로만은 한계가 있더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려면 내가 그만큼 경지에 이르러야 할 텐데. 때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서 보자마자 신청했다. 8회를 다 수강하고 나면 잘 연주할 수 있겠지?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이번이 처음인가?

아는 언니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전시회도 참여하고 〈텐트 올나잇〉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다. 친구들과 함께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근무 중인 학교가 여기서 멀지 않아 퇴근 후에 자주 찾는 편이다.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계획은 없나.

학급 단위로 전시를 관람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1층 상설전시장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책도 많아서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것 같다.

● 신당창작아케이드 〈나도 예술가〉 참가자

김현주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신당창작아케이드를 찾는다는 김현주 씨. 〈나도 예술가〉 체험공방에서 아이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평소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은가.

무언가를 체험하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신당창작아케이드도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도자 프로그램에 다니다가 친해진 지인이 소개해서 알게 됐다.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은 어땠나?

직접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 뿌듯하고 대부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라서 무척 유익하다. 오늘은 규방공예 체험이라 훈민정음 문양을 넣은 주머니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선물할 일이 있을 때 포장지 대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선물을 주머니에 담아서 건네면 고급스럽고 정성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신당창작아케이드를 자주 찾는 이유가 있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다. 한 번만 신청하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무료로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참 좋다.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게 있나?

그동안 칠보공예부터 물레체험, 도자체험 등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유리공예를 한 번도 못해봤다. 예전에 진행했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 한 번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김현주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의 많은 독자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생전 처음으로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동기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였는데, 수천 포기의 배추를 하루 종일 버무렸습니다. 몸살이 나서 고생했지만 김치를 먹으며 기뻐할 이웃들이 떠올라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문화나눔이 뜬다」는 칼럼을 보면서 이 세상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나눔」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김유빈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모든 기사가 다 재미있었지만, 연상호 감독의 작품관을 알 수 있었던 「영 아티스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돼지의 왕」은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인터뷰가 실려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앞으로 독자들이 공연관람 후 느낀 감상을 기고할 수 있는 지면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공연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교수이자 배우인 매튜 슬라이트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서울 안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테지요. 그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매튜 슬라이트 씨는 우리나라 전통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실렸으면 합니다.

홍성국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처음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문화+서울」을 접하게 됐는데, 내용이 알차고 좋아서 요즘은 늘 「문화+서울」 나오는 날만 기다립니다. 깔끔한 표지 디자인도 무척 마음에 들고요. 이번 호에서는 「한식, 뉴욕을 접수하다」라는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한식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한식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정 전남 순천시 서면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극장,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다산플라자, LG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충무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송아트센터, 아르코미술관, 대학로예술극장, KT&G 상상마당, 한전아트센터, 성곡미술관, 백암아트홀, 코엑스 아티움, 상명아트센터,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프

조선 조수

2012년 혼혈족이 완성한
전국신화가 작동한다!



프리뷰 50% 할인 12,500원 (1.18 ~ 1.20)
설 연휴 30% 할인 17,500원 (1/21 ~ 1/24)

평일 7시 / 주말, 공휴일 3시 (월, 1월 23일(월) 설 당일 공연 없음)

2012. **1.18** WED
2.12 SUN

남산예술센터드라마센터

예매·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www.nsartscenter.or.kr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kr

대학로티켓 1599-7838 www.대학로티켓.com

티켓가격 일반 25,000원 청소년 15,000원 (14세 이상 관람가)

작 김지훈 연출 김재업

드라마터그 김주연 무대 정승호 조명 피예경 의상 오수현 분장 이지연

안무 김형남 음악 최정우 소품 권보라 조연출 박효진 이시은 무대감독 김지현

출연 윤정섭 이원재 김지성 고수희 김소진 지춘성 장성익 조정근 한갑수 김효숙 황석정
하성광 유병훈 윤종식 이해원 이정수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제작 남산예술센터

